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3차 신학포럼

발표 : 이승진 박사 · 강일구 박사

- ❖ 일시 : 2018년 2월 12일(월) 오전 10시 ~ 오후 1시
- ❖ 장소 : 로뎀교회 로뎀채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4길 31)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KOREAN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목 차

·알리는 말씀 ----- 4

·발표1: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발표/ 이승진 박사 ----- 5

 논평/ 김영태 박사 ----- 36

·발표2: 설교를 통해 본 한국 개신교회의 사사화(私事化)

 발표/ 강일구 박사 ----- 42

 논평/ 지창현 박사 ----- 66

• 알리는 말씀

1.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3차 신학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발표와 논평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이번 포럼을 위해 장소와 중식을 제공해 주시고, 원활한 포럼 진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로댐교회 권호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포럼이 끝난 후 중식이 제공되오니,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35회 정기학술대회가 2018년 5월 12일(토), “4차 산업혁명과 목회”라는 주제로 개혁주의생명신학실천신학회와 공동 정기학술대회로 열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복음과 실천신학」 제47권에 투고하실 분들은 2월 20일까지 논문투고신청서를 학회 공식 이메일(keptmail@daum.net)로 보내주시고, 3월 15일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과 실천신학」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복실 홈페이지(<http://kept1997.kr>)에서 논문검색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온라인을 통한 논문 검색과 논문 투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바랍니다.

[발표1]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¹⁾

이승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초록]

본 논문은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뉴미디어 생태계를 분석하였고, 후반부에서는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콘텐츠(Contents)와,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디바이스(Device)의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치사슬체계이다. CPND의 가치사슬체계는 뉴스와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대의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되 여기에 더하여 정보가 가지는 현장감과 현존감, 그리고 실재감까지 제공한다.

그렇다면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뉴미디어 생태계는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쇠퇴와 영적인 설득력 구조의 붕괴, 그리고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양극화 심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의사소통과 설득을 위해서는 권위 체계와 설득력 구조가 중요하다. 뉴미디어 생태계는 전통적인 권위 구조와 설득력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현대인들의 설득력 기제의 빈 자리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권위 구조나 설득력 구조를 따르지 않고 뉴미디어의 가치사슬체계를 채우고 있는 가공된 시뮬라크르 이미지들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의 상당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이 제공하는 가상현실과의 상호작용이나 교감은 면대면 상호작용이 아니라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에 불과하다. 그 세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이미지들 역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초현실의 이미지들인 시뮬라크르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괴리감이 점차 심화되고 정보 무력감도 더욱 깊어가고 있다.

[주제어] : 뉴미디어 생태계, 가상현실, 면대면 상호작용, 매개된 의사-상호작용, 시뮬라크르, 현존감, 설득력 구조.

1)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4299).

I. 들어가는 말

인류의 역사는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communication through media)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 세계와의 의사소통(또는 소통, communication)을 추구해왔으며,³⁾ 지식과 정보를 소통함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부를 축적해 왔다. 인류 문명이 원시적인 수렵 시대로부터 농경시대와 산업화시대를 거쳐 지식정보화 시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통을 매개하는 미디어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거쳐 왔다.

미디어 발전의 역사는 구술이나 이미지, 또는 문자에 의존하던 전 미디어 시대(pre-media age)와 인쇄 활자와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자매체를 사용하던 미디어 시대(media age), 그리고 무선 인터넷으로 기존의 모든 미디어가 융합된 하이미디어 시대(high media age)로 구분된다.⁴⁾ 2천년대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무선 인터넷 기술은 그 이전에 사용된 모든 미디어들을 전방위적으로 융합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소통을 위한 모든 미디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소통 현장에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전 인류가 뉴미디어 생태계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전지구적 규모의 의사소통 네트워크(global communication network)를 형성하고 있다.⁵⁾

	pre-media age			media age			high media age
	구술시대	형상시대	문자시대	활자시대	청각시대	영상시대	융합시대
구어	○						media convergence 미디어 융합 시대
그림	○	○					
문자	○	○	○				
인쇄물	○	○	○	○			
라디오/전화	○	○	○	○	○		
TV	○	○	○	○	○	○	
인터넷	○	○	○	○	○	○	○

2) Mitchell Stephens, 이광재, 이인희 역 『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2.

3) 연구자는 의사소통(意思疏通, communication)을 줄여서 '소통'(疏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communication은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나 사상, 언어, Text, 감정이나 정서, 그리고 의지까지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교류와 소통을 의미하는 반면에, '의사소통'은 communication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내용을 주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뜻이나 생각에 국한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다.

4) I. Fang, *A History of Mass Communication: Six Information Revolutions*, 심길중 역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역사: 6단계 정보혁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융복합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현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조.중.동.과 같은 거대 신문사들이나 방송3사(KBS와 MBC, SBS)나 언론사들은 한국사회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⁶⁾ 예전의 한국인들이 정보 소통을 위하여 기존의 언론사에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였다면 오늘날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인터넷 포털사의 언론에 더 많은 의존도를 보인다. 강내원에 의하면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TV 방송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렇게 융복합 하이미디어 또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휴대폰이 추구하는 인류의 행복, 또는 인간 능력이 극대화된 가상현실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달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반대로 어떤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가? 뉴미디어 생태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한국 교회가 선포하고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뉴미디어 생태계가 주도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교회 안팎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 복음을 소통하고 확산해야 할 것인가?

II.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국내 신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지만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뉴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에 따른 현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전략이나 효과적인 설교의 전달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먼저 문영빈은 “정보미디어시대의 종교학의 새 지평”(2008)에서 정보미디어 시대가 구텐베르크의 매체혁명을 능가하는 전대미문의 미디어빅뱅(Media Big Bang)의 시대를 열었음을 설명한다.⁸⁾ 그는 또한 디지털테크놀로지의 혁명이 종교경험에

5) 위의 도표는 다음을 참고하라. Cf., 김문조, 『융합사회의 소통양식 변화와 사회진화 방향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37.

6) 김영주, “신문산업의 위기와 사업다각화: 신문사의 뉴미디어 사업 진출 현황과 의미”, 『관훈저널』 95 (2005,6):11-20. 송종길, “매체별 신뢰도의 유사성 및 차별성 분석 연구: 기자와 수용자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2 (2007,4): 180-202.

7) 강내원, “시민의 매체 이용과 언론사에 대한 신뢰: 매체별 이용패턴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3 (2010,9):5-46.

서 매체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매체의 근원적 종교성에 관한 새로운 질문을 제시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시스템이론을 응용하여 매체학과 인지과학, 시스템학을 창조적으로 융합한 메타방법적 틀로 매체종교학과 인지종교학, 그리고 시스템종교학을 제시한다.⁹⁾ 문영빈의 연구는 뉴미디어 생태계의 등장으로 인한 종교학의 새로운 과제를 거시적이고 통전적인 프레임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과 범위 때문에 뉴미디어 생태계 안에서의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이나 설교의 효과적인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윤영훈은 “복음주의 운동의 대중적 문화 미디어 필그림”(2010)에서 미국 복음주의운동의 주요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와 매스미디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¹⁰⁾ 윤영훈에 의하면 그동안 복음주의 기독교는 언제나 미디어 기술을 적극 활용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뉴미디어 생태계의 도래로 말미암아 신선하고 설득력 있는 문화 콘텐츠의 예술성과 창작능력, 그리고 미디어 문화에 대한 보다 성숙한 비평 능력과 의식의 고양을 제안하였다.

김명찬은 “새로운 모바일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색”(2010)에서 뉴미디어 시대를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로 규정하고 새로운 모바일 디지털(SNS)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독교 예배의 세대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¹¹⁾ 김명찬에 의하면, 20대 이하 디지털문화에 노출된 세대에게는 컨버전스 예배나 이머징 예배 양식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김명찬은 찬양과 영상 중심의 감성 세대인 30-40대에게는 콘서트 예배와 멀티미디어 예배, 그리고 구도자 예배나 열린 예배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과 범위 때문에 뉴미디어 생태계가 구성하는 가상현실과 이를 극복할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고원석은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2011)에서 발터 벤야민(W. Benjamin)과 마셜 맥루언(M. McLuhan), 빌렘 플루서(V. Flusser), 귄터

8) 문영빈, “정보미디어시대의 종교학의 새 지평: 매체학, 인지과학, 시스템이론의 창조적 융합”, 『종교연구』 52 (2008, 09): 191-228. 문영빈은 이후에도 “뉴미디어, 종교체험, 예배: 가상체험의 매체신학적 조명”(2010)에서 뉴미디어를 통한 가상세계에서의 종교적 체험의 속성을 “계시적 가상체험”으로 설명한다. 문영빈, “뉴미디어, 종교체험, 예배: 가상체험의 매체신학적 조명”, 『기독교교육정보』 25 (2010, 4):227-260.

9) Cf., Niklas Luhmann, *The Reality of the Mass Media*, trans. Kathleen Cros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2000).

10) 윤영훈, “복음주의 운동의 대중적 문화 미디어 필그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8/1 (2010, 4):81-105. Cf., Quentin J. Schultze, *American Evangelicals and the Mass Media* (Grand Rapids: Zondervan, 1990), 24.

11) 김명찬, “새로운 모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색”, 『신학과 실천』24 (2010,09): 337-365. Cf., Rich Ling, 배진환 역, *How Mobile Communication is Reshaping Social Cohesion*, 『모바일 미디어와 새로운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출현』(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안더스(G. Anders), 그리고 니일 포스트먼(N. Postman)과 같은 미디어 생태학자들의 통찰에 근거하여 뉴미디어 생태계의 속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현대 기독교교육의 과제로서 가상현실에서 뛰놀기와 가능성의 감각, 그리고 미디어 송배의 성찰을 연구하였다.¹²⁾ 고원석은 뉴미디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학습자의 일상적인 리얼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미디어 상상력의 중요성과 아울러 기독교 내러티브와 드라마를 결합한 비블리오드라마(Bibliodrama)를 제안하였다. 고원석의 논문은 현대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함과 동시에 기독교 교육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과 범위 때문에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효과적인 전략은 직접 다루지 않았다.

이주아도 “한국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모색: 모바일 미디어를 중심으로”(2012)에서 현대 청소년 문화를 지배하는 모바일 미디어를 기독교 청소년 교육 현장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¹³⁾ 하지만 모바일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 생태학적인 분석이나 기독교 설교 소통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최근에 민장배는 “미디어를 통한 신앙 교육 활성화 방안”(2016)에서 한국교회가 교육 현장에서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방안으로 홈페이지와 사이버 강의, 블로그와 유튜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앙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⁴⁾

이승진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설교 생태계의 변화”(2013)에서 현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21C 한국사회 내의 기독교 메시지의 소통과 확산에 심각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첫째로 한국교회 안팎으로 설교 메시지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설교 메시지에 행동-가치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으며, 설교자의 인격적인 진정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설교 메시지의 다양한 편향성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¹⁵⁾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

12) 고원석,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장신논단」 41 (2011, 7):289-314. Cf., W. Benjamin,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2』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44; V. Flusser, 김성재 역 『피상성 예찬: 매체 현상학을 위하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90-91; N. Postman, *Technopoly*, 김균 역 『테크노폴리: 기술에 정복당한 오늘의 문화』 (서울: 궁리출판, 2009), 33.

13) 이주아, “한국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 (2012.10): 351-375.

14) 민장배, “미디어를 통한 신앙 교육 활성화 방안” 「신학과 실천」48 (2016, 02):495-518.

15) 이승진,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설교 생태계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27(2013년): 301-334; Harold Innis, *Empire and Communication* (Toronto: Dundurn Press, 2007), 7; Alexander John Watson, *Marginal Man: The Dark Vision of Harold Innis*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2006), 313; Neil Postman, *Amusing Ourselves to Death: Public Discourse in the Age of Show Business*, 정탁영 공역, 『죽도록 즐기기』(서울: 참미디어, 1997), 20, 44.

는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전략은 후속연구로 남겼다. 본 논문은 이 분야의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응답하려는 한 가지 시도이다.

최근에 조성호는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의 특성과 기독교 영성의 상관관계 연구”(2015)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가 기독교 신학과 영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미디어 문화와 기독교 영성의 상관관계를 과거지향적인 연역법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귀납법을 요청하는 것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⁶⁾ 조성호의 연구는 맥루언과 월터 옹(Walter Ong)의 미디어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에 근거하여 미디어 문화와 종교의 관계, 미디어 문화와 기독교 영성의 관계, 그리고 미디어 문화와 영성의 변화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고,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에 대하여 기독교가 자발적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귀납법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과 범위 때문에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에 실천적인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최근에 김병석은 “인공지능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2016)에서 인공지능(AI)이 현대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인공지능 로봇은 성경 내용에 대한 분석과 회중의 상황과 필요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기독교 설교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며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를 기도를 통한 딥 스피릿(Deep spirit)의 영역 안에서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다.¹⁷⁾ 김병석의 논문은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비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기술을 기독교 목회자들의 핵심적인 역할인 예배와 설교 사역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러 신학자들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이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이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과 그 속에서의 효과적인 설교 전략에 관한 연구는 좀 더 깊이 있는 수준으로 진척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연구 과제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뉴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이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에 미친 영향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의 기독교 설교의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리처드 오스머(Richard Osmer)가 제시하는 이론신학과 목

16) 조성호,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의 특성과 기독교 영성의 상관관계 연구”, 『신학과 실천』 46 (2015, 9):385-412.

17)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신학과 실천』 49 (2016, 5):159-184.

회현장의 실천을 통합하는 4단계 실천신학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다.¹⁸⁾ 리차드 오스머가 제시하는 실천신학의 연구방법론은 서술과 분석, 규범, 그리고 전략의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서술 단계는 ‘오늘날 현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을 감싸고 있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필자는 21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뉴미디어 생태계의 실상과 뉴미디어 생태계가 매개하는 가상현실과 사이버스페이스, 그리고 매개된 현실의 파급력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이어서 둘째 분석 단계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둘째 단계에서는 뉴미디어로 매개되는 사이버스페이스와 가상현실, 그리고 시뮬라크르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상현실 속에서의 아우라의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소통 양식에 미친 영향으로 사회적 권위 구조의 쇠퇴와 양극화의 심화, 영적인 설득력 구조의 붕괴, 인식론적인 경계선의 상실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다.

셋째 규범 단계는 앞서 확인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신학적인 규범을 확립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기독교적인 복음의 확산과 소통을 위한 매체의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뉴미디어의 가상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계승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규범과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 전략 단계는, ‘그러면 우리 설교자들은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뉴미디어의 부정적인 파장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소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첫째와 둘째 단계의 뉴미디어 생태계 현상에 관한 서술과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할 것이고, 다음의 후속 논문에서는 앞의 논문에서 제시된 이론적인 기초 위에서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소통에 관한 신학적인 규범을 마련하고 그 규범을 실천할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실천적인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III.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생태학적인 분석

1. 뉴미디어 생태계의 등장

18) Richard Osmer, *Practical Theology : An Introduction*, 김현애, 김정형 공역,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 (서울:WPA, 2012), 27-59. 한재동, “통합과 귀납의 패러다임, 실천신학의 실천신학적 이해”, 『신학과 실천』 제 35호 (2013, 05):64.

최근 한국사회는 비약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5년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에서 조사대상 167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을 1위로 선정하였다.¹⁹⁾ ‘ICT 발전지수’는 ITU가 각 나라 국민들의 ICT 접근성과 ICT 이용도, 그리고 ICT 활용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국가별 ICT 발전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덴마크에게 1위를 내주었다가 2015년에 다시 1위를 재탈환하였다. 한국은 세 가지 부문별 순위에서 ICT 접근성은 9위를, ICT 이용도는 4위를, 그리고 ICT 활용능력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세 가지 범주를 종합한 ICT 발전지수는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력 덕분에 오늘날 무선 인터넷은 현대인들에게 공기와 같은 필수재로 정착되었고, 인터넷이 모든 사물들 속에 내재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인터넷은 현대인의 가시권에서 완전히 사라질 단계를 앞두고 있다.²⁰⁾ 2014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는 ‘인터넷은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에릭 슈미트의 주장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시대가 도래하면 무선 인터넷 기술이 현대인이 사용하는 모든 사물들 속에 전자 신경망처럼 장착되어, 마치 공기나 전기처럼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도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인터넷도 일상품화(Commoditization)하여 그 존재감을 현대인들이 더 이상 의식하기 어려워질 것을 예견한 것이다.²¹⁾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력은 어떤 방식으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을 구성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CPND로 집약된다. 정법근에 의하면 현대의 미디어는 콘텐츠(Contents)와,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디바이스(Device)의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현대인들 모두를 무한대의 의사소통을 위한 생태계의 환경을 형성한다.²²⁾ 달리 말하자면 현대인은 CPND 환경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소통하면서 살고 있다. 권혁인과

19) “세계 최고 수준의 ICT 환경을 토대로 지능정보사회 조기구현”, 「미래창조과학부」(2016년 11월 22일 보도자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 2년 연속 1위”, <국가지표체계-ITU ICT 발전지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4.

20) 이성우, “새로운 산업혁명과 국제정치질서의 전망”, 「국제정치논총」 57/1 (2017.03):313-346. Klaus Schwab, 송경진 역,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안진환 역, 『3차 산업혁명: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민음사, 2012).

21) 정법근, “사물인터넷 시대의 C-P-N-D 생태계 동향”, 「정보통신방송정책」 27권/3호 No 594 (2015.2):29-30.

22) 최창현, “C-P-N-D 생태계와 IC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3 (2014): 7-16.

나운빈에 의하면, CPND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부 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써 “플랫폼을 기본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와 소비자의 디바이스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유통 거래를 추구하는 가치사슬체계”라고 한다.²³⁾

CPND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첫째 요소인 콘텐츠(contents)는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 자료들로서 텍스트와, 이미지, 뉴스, 웹페이지, 음원, 동영상, e-book 등등이 해당된다. 둘째로 플랫폼(platform)은 좁은 의미로는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를 제공, 유통하는 기술적인 기반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를 가리키기도 하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다음(daum)이나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 처럼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사업체나 그러한 사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 저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셋째 네트워크는 콘텐츠를 공급, 유통하는 플랫폼(저장소)을 소비자들과 연결시켜주는 통신사(SK telecom, KT, LG U+)들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고 소비하는 각종 전자기기들(컴퓨터, 모바일 휴대폰 기기, 단말기)을 가리킨다. 이상의 네 가지 미디어 요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시공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의사소통 네트워크로 연결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융복합의 의사소통 연결망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응답하려는 학문적인 시도가 미디어 생태학이다. 미디어 생태학(media ecology)은 다양한 미디어들이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체 과정을 생태계(ecosystem)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미디어 생태계(media ecosystem)는 전통적인 생물학적인 개념의 생태계와 유사성을 공유하면서도, 의사소통하는 인간과 소통을 위한 미디어,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사이의 소통 작용을 위한 일정한 체계를 의미한다.²⁴⁾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현대인들의 소통 전반의 환경을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생태계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미디어 생태학이다. 그래서 이동후에 의하면, 미디어 생태학은 현대인들의 소통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CPND 전체를 소통의 환경으로 이해하고서 현대인들이 소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미디어 기술과 현대인들의 공생적인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학문이다.²⁵⁾

23) 권혁인, 나운빈, “CPND 생태계 관점의 전자책 시장 활성화 요인 연구: 출판사 실무자 AHP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13/4 (2015.4): 51-59.

24) Casey Man Kong Lum, 이동후 역, 『미디어 생태학 사상』 (서울: 한나래출판사, 2008), 48-92; 김유석, “미디어 생태계의 평형상태를 위하여: 분해자로서의 소비자를 위하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4):3-18.

25) 이동후, “뉴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생태학의 지적 실천과 함의”, 「한국방송학회」 29/5 (2015):32-66.

미디어 생태학(media ecology)이란 용어가 학문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닐 포스트만이 1968년에 뉴욕대학교에 박사과정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²⁶⁾ 하지만 이전부터 마샬 맥루언이나 그 이후 자크 엘룰(Jacques Ellul), 해럴드 이니스(Harold A. Innis),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 월터 옹(Walter Ong)과 같은 여러 학자들도 미디어 생태학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960년대부터 전자 미디어가 현대인들과 현대 문명에 미칠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파장에 관하여 비평적인 탐구를 시작하였다.²⁷⁾

최근 10-20년 어간에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뉴미디어 생태계는 현대인의 삶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⁸⁾ 미디어 생태학자들이 뉴미디어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뉴미디어는 새로운 시공간(사이버스페이스)과 새로운 세계(가상현실)를 만들어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모바일인터넷이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new media ecosystem) 환경은 현대인들에게 이전과 다른 시공간을 제시하며, 이전의 물리적인 시공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와의 만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2.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

미디어(media, 매체)의 어원은 ‘중재하다’나, ‘중간에 있다’, ‘가르다’, 혹은 ‘나누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mediare’에서 유래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태고 이래로 항상 뉴스와 소식을 빨리 듣기를 원한다.²⁹⁾ 예전에는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중요한 정보는 항상 물리적인 시공간의 현실세계로부터 직접 얻었다. 하지만 CPND의 뉴미디어 생태계가 조성된 오늘날에 현대인들은 모든 뉴스나 정보를 뉴미디어가 만들어낸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 얻는다. 21세기에 뉴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 정보통신 기술력 덕분에 현대인들은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속에서 무한대 분량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를 빛의 속도로 공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디어가 중립적으로 정보나 뉴스만을 전달하지 않고 소통 과정

26) Casey Man Kong Lum, 『미디어 생태학 사상』, 51ff.

27) Casey Man Kong Lum, 51ff.

28)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21-22, 381.

29) Mitchell Stephens에 의하면 1702년 영국 윌리엄 왕의 사망 소식이 미 본토에 전해지는데 2개월 9일이 걸렸고, 1800년 조지 워싱턴 사망 소식이 미 북부 지역에 전달되는 데는 3주일이 걸린 반면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소식은 사건 발생 30분 내에 전 미국인의 70%가 알게 됐다. Mitchell Stephens, 이광재, 이인희 역, 『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314.

에서 그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 생태학자들은 현대의 뉴미디어가 뉴스나 정보 콘텐츠들을 빛의 속도로 전달하여 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20세기 중반에 이전 문명사에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전자 미디어들(라디오, TV)이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셜 맥루언은 ‘미디어가 메시지다’이며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라는 혁신적인 명제를 제시하였다. 라디오나 TV가 등장하기 이전에 미디어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라디오와 TV, 그리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 수용자가 전에 제공받지 않았던 전혀 다른 메시지들을 함께 전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구의 근대화 이전의 뉴스들은 수용자와 완전히 분리된 세상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을 뿐, 두 세상을 하나의 세상으로 관계맺도록 연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TV나 SNS를 통한 뉴스는 뉴스가 발생한 시공의 상황과 뉴스를 전달받는 수용자의 시공 상황을 하나의 세상으로 연결하고 결합한다.

대표적인 미디어 학자인 마셜 맥루언은 이러한 변화를 미디어 생태학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에 의하면 문자가 인간의 인지구조에 미친 영향은 선형적 사고라고 한다.³⁰⁾ 하지만 20세기 초 전자혁명의 도래로부터 시작된 전자시대(electronic age), 또는 입체적인 시청각 미디어가 지배하는 뉴미디어는 정보 전달의 입체감과 즉흥성, 그리고 현존성을 전달한다. 이런 배경 때문에 마셜 맥루언은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 미디어는 ‘인간 감각의 확장’, 또는 ‘인간의 소통 감각(능력)의 확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셜 맥루언은 현대 미디어를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로만 국한하지 않고 현대의 모든 기술문명 전체를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의복은 피부의 확장이고, (자동차와 기차의) 바퀴는 발의 확장, 책자나 신문은 인간의 눈을 통한 소통 능력의 확장, 라디오는 귀의 확장, 전기회로는 인간의 중추신경 체계의 확장이다. 뿐만 아니라 전깃불은 밤에도 낮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소통) 시간의 확장이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는 인간 기억력의 확장이고, 인터넷은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소통 공간(communication space)을 확장하고 새로운 소통 관계를 형성한다.

현대의 뉴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낸 사이버스페이스(또는 가상공간)과 그 속에 형성된 소통 공간의 위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또는 가상공간)는 인공두뇌학(cybernetics)을 의미하는 사이버(cyber)와 공간을 의미하는 스페이스(space)의 합성어로서 물리적인 시공간으로

30) Marsha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138-39.

구성된 현실 세계가 아니라 컴퓨터 미디어나 인터넷 미디어가 매개하여 사람의 두뇌 속에서 지각할 수 있도록 구성된 또 다른 공간(또는 세상)을 의미한다.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는 용어는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이 1982년에 발표한 소설『뉴로맨서』(*Newromancer*)에서 처음 등장하였다.³¹⁾ 깁슨의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 시스템 속에서 특정한 좌표값을 갖는 매트릭스(matrix, 모체 또는 기반)를 가리키며, 컴퓨터 사용자는 실제 현실 세계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육체가 특정 시공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컴퓨터 매트릭스 속으로 몰입되고 포획되어 그 속에서도 물리적인 시공간의 생태계 환경에서처럼 자유로운 인식 활동을 향유할 수 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육체는 일정한 시공간의 좌표에 속박되어 있지만, 수 많은 컴퓨터로 연결된 네트워크와 상대하는 정신은 그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유롭게 사고하며 그 매트릭스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과 의사소통을 진행하거나 교감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깁슨이 1982년에 과학소설(SF, scientific fiction)『뉴로맨서』(*Newromancer*)를 통해서 세상에 소개한 사이버스페이스는 그로부터 채 20년도 되지 못하여 전 세계인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창립자인 존 페리 발로우(John Perry Barlow)는 1996년에 최초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네티즌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였다.³²⁾ 이 선언문에서 존 페리 발로우는 기존의 물리적인 시공 환경 속에 위치한 일반 사회와 철저한 단절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뉴미디어 생태계를 통해서 형성된 가상공간 속에서 인간의 완전한 자유와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³³⁾

뉴미디어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된 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는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을 매개로 형성된 공간(CMS, computer mediated-space)이고 핵심 기능이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가상공간은 곧 소통 공간(communication space)이다. 컴퓨터와 모바일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축된 사이버스페이스는 인류에게 제 3의 새로운 시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의 전인격적인 접촉이 없이도 그 속에서 의사소통과 교감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가리켜서 가상공간(virtual space)이나, 인공환경(artificial environment)이라고 부르고, 그 속에서 접촉하는 상호작용의 대상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인공현실(artificial reality)이라고 부른다.

31) William Gibson, *Newromancer*, 김창규 역 『뉴로맨서』 (서울: 황금가지, 2005).

32) 전문 참조(<https://www.eff.org/cyberspace-independence>).

33) 이연호, 조화순, 『가상현실 내에서의 사회구조의 형성과 변화』 (서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16.

그렇다면 뉴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낸 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는 뉴스와 정보 콘텐츠를 빛의 속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CPND로 형성된 뉴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가상공간(virtual space)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인들이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과 상호작용하며 교감하는 과정이나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3. 가상현실 속에서 매개된 상호작용

우리 인간은 타자와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나누며 교감을 나누려면 그 양자의 중간에 미디어를 이용한다. 우리 인간은 중간 미디어(매체)가 없이는 결코 타자나 사회, 그리고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도 없고 의사소통을 나눌 수 없다. 소리를 듣더라도 음파의 진동을 전달할 공기 매질이 필요하고, 소통을 위해서도 중간에 소통 매체가 활용된다. 그런데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1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과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뉴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를 통해서 소통하고, 뉴미디어 생태계가 형성하는 가상공간 속에 존재하는 가상현실과 소통한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물리적인 시공 환경 속의 실재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과는 매우 차별화된 방식으로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과 의사소통을 나누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 방식의 독특성은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미디어 학자인 존 톰슨(John Thompson)에 의하면 현대의 매스 미디어의 독특성은 세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들의 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³⁴⁾ 첫째는 사람들이 소통 대상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진행하는 면대면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이다. 면대면 상호작용의 소통에서는 눈에 보이며 귀에 들리는 대상으로부터 전달받는 의미가 전부이다.

그런데 편지나 전보, 또는 전화기가 등장하면서 면대면 상호작용과 전혀 다른 방식의 소통이 일어난다. 전화(나 최근의 문자)를 통한 소통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이지만, 풍부한 소통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 상호작용과 다르다.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은 면대면 상호작용과 달리 매체를 통해서 전달 가능한 특정 정보나 사실들만 전달되며, 소통 방식도 매체에 의존하는 매개된 상호작용(mediated interaction)으로 진행된다.

존 톰슨이 주목하는 세번째 상호작용은 신문이나 TV, 또는 비디오와 같은 매스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이다. 오늘날 개인들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과 상

34) Anthony Giddens, *Sociology*, 김미숙 공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2), 380-382.

호작용의 소통에 참가하지만, 세번째 상호작용은 이전의 두 가지 상호작용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전의 두 상호 작용이 대화의 차원을 가진 인격적인 상호작용이라면, 매스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개인이 매스 미디어를 상대로 독백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존 톰슨은 이를 가리켜서 '매개된 의사-상호작용'(mediated quasi-interaction)이라고 부른다.³⁵⁾

현대인들이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나 직접 가보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 혹은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마치 당사자의 시각으로 말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실시간 사건을 보도하는 TV 방송이나 무선 인터넷을 통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 형성된 가상공간 속에서 가상현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파급력 있는 정보 콘텐츠를 얻었기 때문이다.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소통하는 현대인들은 물리적인 시공 환경 속의 현실 세계와 직접 소통하지 않고 뉴미디어 네트워킹을 통해서 매개된 현실과 소통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존 톰슨이 주목하는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이다.

이런 이유로 미첼 스티븐슨(Mitchell Stephens)에 의하면, 현대의 뉴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낸 가상공간과 그 속의 가상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매개된 현실 세계'(mediated reality)에 살고 있다고 한다.³⁶⁾ 매개된 현실 세계는 물리적인 시공으로 구성된 현실 세계와 전혀 다르다.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욕망이 일정 수준 제약을 받는 세계인 반면에 가상공간 속에서는 인간의 욕망이나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무한대의 세상이다. 물론 인터넷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명제와 익명성 보장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은 쉽게 마련될 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인터넷이 만들어낸 가상공간 속에서 실명제와 익명성 보장 사이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긴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물리적인 시공간의 면대면 상호작용과 가상공간의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면대면 상호작용의 주체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개인 인격체라면, 가상공간의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의 소통을 나누는 주체는 '아바타'(avatar)와 같은 사이버 자아(cyber self)이기 때문이다. 21세기 현대인들이 뉴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타인과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소통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바타이다. 아바타/avatar의 어원은 힌두교에서 지상 세계로 강림한 신의 육체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아바타라'에서 유래되었다. 힌두 신화에서는 신이 현세를 방문하

35)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 381.

36) Mitchell Stephens, 이광재, 이인희 역 『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429; 이기상, “현상과 미디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존재론 연구』 30 (2012): 1-34.

는 동안에 인간이나 동물의 몸을 잠시 빌려서 나타나며 아바타는 이러한 일시적인 육체(temporary body)를 가리킨다. 21세기에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는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대신하는 그래픽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며, 인터넷 가상공간 속의 3차원 영상이나 가상현실 게임, 또는 채팅에서 자신을 대신 표현하는 그래픽 아이콘으로 현실의 자아를 대신하는 사이버 자아이고 가상의 인격체이다.³⁷⁾

21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공 환경 속에서 면대면의 상호작용으로 소통하였다. 하지만 21세기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현대인들은 면대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가상의 인격체인 아바타를 대리자로 내세워서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과 상호작용을 나누고 그 속의 사이버 자아들과 의사소통을 나눈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생태계 환경 속에서 소통하는 참 자아(A)는 동일한 생태계 환경을 살아가는 다른 참 자아(B)와 일정한 시공의 환경을 함께 공유하며 소통한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공간 속에서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을 나누는 사람은 그 가상세계 바깥의 참 자아가 아니라 참 자아를 대신하는 아바타, 곧 사이버 자아(A')가 또 다른 사이버 인격체들(B', C', D'...)과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을 나누면서 의사소통을 나눈다.³⁸⁾

그렇게 뉴미디어 생태계 안의 가상공간에서 사이버 자아인 아바타들끼리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으로 소통을 나눈다면 그러한 소통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 소통일까? 혹은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헛된 소통을 나누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상공간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의 인식론적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 가상공간 속의 아바타와 시뮬라크르

사이버스페이스는 정보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현실, 즉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인공현실(artificial reality)을 만들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세계로부터 가상현실 세계로 이주시킨다. 뉴미디어 생태계가 물리적인 시공의 생태계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상공간으로 이주시키는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있다.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인간의 욕망을 속박하지 않고 그 욕망을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탱크가 돌진하는 현대의 전쟁을 보도하는 실시간

37) 이종윤, 윤주현, “역할 이론을 활용한 아바타의 사례 연구”, 「sigforum」 (2011.12): 174-191.

38) 이호규, “주체형성 장치로서의 가상공간과 커뮤니케이션 모델: 르페브르와 푸코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2) (2010.06): 191-192, 173-213.

뉴스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전쟁의 현장감(sense of presence, 또는 현존감)을 제공하고 시청자 개개인이 전쟁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 같은 실재감(sense of reality)을 제공한다. 이러한 현장감과 실재감은 현대의 거대한 조직 사회 속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확인하고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국방 장관이나 대통령의 위치에서 향후 안보정세를 위하여 중요한 판단이나 깊이 있는 사고, 또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91년 1월 중동의 쿠웨이트에서는 이라크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미국 주도의 34개국 다국적 연합군의 격퇴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 때 CNN 방송은 미국의 폭격기가 전함에서 발진하는 모습부터 시작하여 이라크군을 향한 폭격기의 폭격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방영하여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전쟁을 마치 “비디오 게임 전쟁”과 같은 느낌을 심어 주었다. 당시 미국인들과 전 세계의 수 많은 시청자들이 CNN 방송에 몰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방송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의와 폭력을 행사하는 이라크의 후세인을 자신이 처벌하는 현장감이나 실재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감과 실재감이 때로는 역사 현실을 살아가는 시청자들의 민주의식의 발전과 성숙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88년 대한민국의 13대 국회는 제5공화국 정부 시절 각종 권력형 비리 문제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5공화국청문회”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이 언론의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보도되었다. 홍석경에 의하면, 5공청문회 TV 중계방송은 “전국민을 간접적으로 청문회라는 의회 절차 속에 참여시키서 5공화국 시절에 억압되었던 것들을 욕하고 뺨아 내고 두들기고 탈신화했던 TV가 매개하는 한판 곳”으로 해석한다.³⁹⁾ 청문회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폭로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홍석경에 의하면, 당시 5공청문회 TV중계방송은 5공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해야 하는 도시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에 부응하는 해독 구성체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2011년 중동 지역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 역시 튀니지 청년의 분신자살이라는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이 이슬람 독재정권 하의 여러 나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한 기제로 인터넷과 미디어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⁴⁰⁾

이렇게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현대인들에게 물리적인 생태계 환경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현장감과 현존감을 제공하는 배경에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그

39) 홍석경, “전환기 한국 방송의 이데올로기: 민주화, 시청률, 중산층”, 『문학과 사회』 2/2 (1989.05): 673-691.

40) 인남식, “2011 아랍 정치변동의 성격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51/4 (2011.12):237-254.

세계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이나 가상세계 접속자들에게 역사 현실의 생태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초현실의 세계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학자인 장 보드리야르(Baudrillard)에 의하면, TV나 비디오와 같은 전자 매체는 시청자들에게 매체 없이 직접 눈으로 대면하는 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사람들이 전혀 지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초현실 세계(hyper reality world)를 구성한다.⁴¹⁾

장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TV와 같은 현대의 전파매체들은 이전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초실제 세계(hyper reality world)를 만들고 이 초실제의 세계 안에서는 사람들의 실제 행위와 미디어의 프레임을 통해서 가공된 이미지들이 뒤섞이면서 구성된다. 장 보드리야르는 사람들이 실제세계에서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없는 가상의 이미지들을 가리켜서 시뮬라크르(simulacre)라고 부른다. 시뮬라크르는 현실세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지만 마치 그것이 존재하고 또 사람들이 지각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공물, 또는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공물이나 그런 대상의 이미지가 시뮬라크르(simulacre)이다.

2016년말 미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를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주류 언론사의 예측을 깨고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트럼프가 한 편으로는 막말 파문으로 언론에 주목을 끌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자신을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몰락한 미국의 중산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SNS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쪽은 단연 트럼프였다.⁴²⁾

오늘날 일반 대중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실 세계가 아니라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매개된 실재(mediated reality)와 가공된 시뮬라크르(simulacre) 이미지들이다. CPND로 구성된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들 앞에 가상공간을 만들고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제들을 활용하여 현대인들을 가상 세계 속으로 유인하여, 그 속에 존재하는 사이버 자아인 아바타와 소통을 유도하거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이미지보다 더 현실감을 주는 초현실의 이미지인 시뮬라크르와 매개된 상호작용을 나누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뉴미디어 생태계의 매개된 실재와 비현실적인 시뮬라크르의 이미지들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41)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 378.

42) 이처문, “미국과 한국의 뉴미디어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한국 선거에서의 인터넷과 SNS 활용과 변천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6.05):167-187.

물론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21세기에 전세계적으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함양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전략을 심층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먼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⁴³⁾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다음에, 후속 논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독교 설교의 효과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V.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메시지의 발신자와 메시지, 미디어, 수신자, 그리고 소통 당사자가 공유하는 생태계 환경과 같은 여러 요소가 동원된다.⁴⁴⁾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설교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 과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자들을 다음 세 꼭지점의 중심부에 위치시킨다. 그 세 꼭지점이란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역사 현실 세계와 뉴미디어 생태계가 구축하는 가상현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응답의 자리이다. 이 세 가지 꼭지점의 중앙에 위치한 목회자들은 현대의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의 영향을 전방위적으로 느끼는 신자들을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안내하여 그 나라의 통치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두번째 단계에서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 한국 사회의 소통 구조에 미친 영향을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쇠퇴와 영적인 설득력 구조의 붕괴, 그리고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양극화 심화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1. 전통적인 설득력 구조의 쇠퇴

43) 앞서 간략히 고찰한 바와 같이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들의 민주주의의 함양에 긍정적인 기여를 제공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Cf., 조항제,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 정부와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6 (2001.05):168-206; 신광영, “한국의 민주화, 시장화와 언론노조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57 (2012.02): 69-83.

44) Michael Quicke, *360-Degree Preaching*, 이승진 역 『전방위 설교』 (서울: CLC, 2012). Robert Stephen Reid, *The Four Voices of Preaching: Connecting Purpose and Identity Behind the Pulpit*,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6).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에 미친 심대한 영향은 일반 사회와 기독교 교회를 막론하고 전통적인 권위 구조가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일에 기독교 교회가 뉴미디어 시대에도 계속해서 전통적인 권위 구조를 고집한다면 뉴미디어 생태계는 당연히 기독교 교회에 부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데이비드 웰즈(David Wells)는 20세기 이후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이 점차 퇴조하는 원인을 교회가 의존해왔던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붕괴에서 찾고 있다.⁴⁵⁾ 데이비드 웰즈에 의하면 과거 서구 사회를 하나로 묶어 준 것은 전통과 권위, 그리고 권력이었다고 한다. 전통이란 “한 세대가 그 뒤를 잇는 다음 세대에게 축적된 지혜와 지식과 가치를 전달하는 통로”이다. 과거에는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감당했다. 하지만 인본주의와 기술혁신, 그리고 상업주의의 등장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이전 세대가 축적한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전통적인 가정과 공교육의 역할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전통적인 권위 역시 무의미해지고 있다.⁴⁶⁾

데이비드 웰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와 신자 내면의 신앙의 상호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신자 내면 속에 신앙으로 뿌리내리려면 반드시 내면적인 신앙을 외적으로 인증해주는 외부적인 네트워크가 동원되어야 한다.⁴⁷⁾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소통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내면적인 신앙을 외부적으로 인증해주고 확인해 주는 설득 메커니즘이 바로 설득력 구조이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외부적인 사건이 사람들의 내면세계에서 의미와 가치를 확보하도록 중재하는 연결고리를 가리켜서 ‘설득력 구조’(plausibility structure)라고 한다.⁴⁸⁾ 근

45) David Wells, 김재영 역 『신학실증』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144-5.

46) 예를 들어 2105년 9월 28일부터 발효된 ‘김영란법’은 OECD 부패 지수 37위권 밖의 ‘부패공화국’으로 평가를 받는 한국 사회에 단군 이래 최대의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긍정적으로는 공직사회나 교육계에 형성된 부정적인 갑을관계가 청산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탱했던 전통적인 권위 구조와 설득력 구조도 함께 쇠락하고 있다. 황지태 외,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469.

47) David Wells, 김재영 역 『신학실증』, 148.

48) Peter L. Berger, *A Far Glory* (New York: Anchor Books, 1992), 45. Peter Berger에게 있어서 현대인들의 설득력 구조 상실은 세속화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Peter Berger는 “사회 및 문화의 어떤 영역이 종교의 제도와 상징체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가리켜서 세속화(secularization)라고 부른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전의 종교적인 제도나 상징체계가 효과적인 가치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Peter Berger, *The heretical imperative*, 서광선 역, 『이단의 시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1), 35. Cf., Dempsey, Ron D., 김순일 역 『성경만큼이나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교회 밖 풍경』 (서울: 요단, 2004), 39-65.

대 이전 중세 시대에는 높다란 교회 건물이나 그 건물 안에서의 장엄한 예배 예전, 현실 사회와 연결된 강력한 설교 메시지, 그리고 교회 바깥의 기독교적인 사회 구조, 복음적인 법률 체계,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실제 거룩한 삶, 기독교적인 도덕과 윤리 체계와 같은 사회적인 하부구조(social infrastructure)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신자들의 내면적인 신앙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설득력 구조’ 역할을 감당했다.

하지만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현대인들은 내면의 신앙을 확보하거나 또는 판단에 기초한 행동을 할 때 더 이상 전통적인 ‘설득력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가치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 속의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통적인 권위 구조와 설득력 구조가 쇠퇴하면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부각되는 설득력 기제와 의사소통의 구조는 무엇인가? 전통과 권위가 사라진 현대사회를 여전히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결속해 주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21세기 현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설득력 구조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뉴미디어가 텔레비전 방송과 무선 인터넷이다.

데이비드 웰즈에 의하면 현대의 텔레비전이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능은 다음 세 가지다.⁴⁹⁾ 첫째는 현대의 텔레비전은 현대인들이 문화를 따라가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매개체 노릇을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텔레비전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기만을 추구하는 타인 지향적인 인간형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현대의 텔레비전은 과거에서부터, 외부 세계에서부터, 공동체 의식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변형된 내면 지향적 개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권위 구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 TV 방송이 새로운 설득력 구조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쿡방(또는 먹방)과 같은 리얼리티 방송물의 증가이다. 20세기까지 사람들은 배고픔을 면하거나 노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는 신체동력의 관점에서 음식을 섭취하였다면,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공허의 시대에는 의미 있는 체험과 타인과의 공감을 위해서 식사 시간을 갖는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의미 있는 식사와 같은 개인의 소비 생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TV나 인터넷의 먹방(또는 쿡방)이 소개하는 식생활 패턴을 그대로 모방하는 시청자들이 엄청난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⁵⁰⁾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 쿡방이라고도 한다. 2009년 1인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 먹는 모습을 방송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이후로 최근까지 TV에서 유명 연예인이 음식을 먹는 방송이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방송에 소개된 식당이 전 국민에게 홍보되어

49) David Wells, 『신학실증』, 265.

50) 김형우, “1인 가구와 방송 트렌드 변화: 먹방, 쿡방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교육』 5/1 (2015. 06.): 152-170.

수 많은 방문객이 쇠도한다거나, 방송에 소개된 음식 재료가 시장이나 식품 마켓에서 순식간에 동이 나기도 한다. 또 쿡방을 진행하는 셰프가 소개한 레시피는 전국민이 즉시로 그대로 따라 만들어 먹는 전국민의 획일화된 메뉴로 부상한다. 이렇게 뉴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은 TV의 리얼리티 쇼(ex., 먹방이나 쿡방)를 통해서 무슨 음식을 어떤 메뉴로 요리하여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면서 음식이나 식사와 관련된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형성, 유지하고 있다.

2.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괴리감

그렇다면 CPND로 구성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까? 오늘날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공간 속에는 거의 무한대의 지식과 정보 콘텐츠가 넘쳐난다. 뉴미디어 기술 덕분에 현대인은 이전 인류와 비교할 수 없는 거의 무한대의 지식과 정보를 확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가 앞으로 인류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그 이유는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세계는 사람이 항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잠깐 보여주는 창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 창문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창문은 현실 세계를 향하여 열린 창문이 아니라 그럴듯한 현실감이나 현장감, 또는 현존감을 제공하는 시뮬라크르의 창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에서는 자아의 분신인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나 시뮬라크르와 상호작용을 즐기더라도, 자아는 결코 사이버 공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 자아가 살아내야 하는 세계는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현실 세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 세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뉴미디어 생태계가 구성한 가상세계에 열광하고 인터넷 중독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⁵¹⁾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에 의하면 근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과학기술이 예술의 영역에 적용되어 고유한 예술작품들을 거의 무한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시작되었다. 원래 예술 작품은 그 작품의 고유한 생명력과 같은 아우라(aura)를 가지고 있다. 아우라는 라틴어로 공기나 공기의 독특한 향기를 의미하며 인간에게는 그 한

51) 최근 한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관하여 다음을 참고. Cf., 이유섭,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하여”, 「한국라깡과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2014, 11): 45-62; 신은화, “포르노그래피 중독과 치유”, 「인간연구」 33 (2017, 01): 171-204.

인격체를 둘러싸는 신비한 광채의 현상이나 또는 한 인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유한 정서적 또는 정신적 작용과 영향 전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예술작품에 대한 대량 복제가 가능한 시대에는 수 없이 복제된 사본들 때문에 특정 작품 고유의 아우라(aura)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⁵²⁾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시뮬라크르에는 사물 고유의 현실감을 발산하는 아우라가 없다. 실제 현실 세계는 자아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못하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현실은 겉으로 보자면 인터넷 공간 속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시뮬라크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 내면에 내재화된 실재감(sense of presence)이다. 오늘날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계적인 명소들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장소에 대한 실재감과 기시감(既視感·데자뷰, déjà vu)을 얻을 수 있다.⁵³⁾

그런데 가상세계가 제공하는 실재감이나 기시감, 현장감, 혹은 현존감은 중요한 차원에서는 실제 현실 세계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상세계가 제공하는 실재감이나 현장감은 그러한 시뮬라크르를 제공하는 미디어 권력의 수사적인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첼 스티븐슨에 의하면 “뉴스가 풍요해지면서 일어난 변화는 미디어를 통해 주장되는 세계(obtrusive world as announced)와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unobtrusive world as is)가 서로 경쟁한다는 점이다.”⁵⁴⁾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현실 세계의 실재와 사이버 공간 속의 왜곡된 이미지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개’에 관한 만화로 설명한다.⁵⁵⁾ 피터 스타이너(Peter Steiner)은 1993년 6월 5일자 미국의 주간잡지 ‘뉴욕커’(The New Yorker)에 게재한 카툰의 글로 인터넷 공간의 왜곡된 시뮬라크르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고발하였다: “인터넷에서는 아무도 당신이 개(dog)라는 사실을 모른다.”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에서는 개처럼 행동하더라도 온라인에서는 미디어 권력의지에 의하여 조작된 이미지들인 시뮬라크르의 환영만 떠돌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아무도 모니터 앞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수준의 사람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21세기 뉴미디어 생태계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인터넷 상에서는 모두가 개(dog)이고 모두가 그 개를 좋아한다는 것이다.⁵⁶⁾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제공하는 시뮬라크르의 환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52) 고원석,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장신논단』 41: 291-3.

53) 윤태진, “정서적 참여와 실재의 재구성: 한국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의 작동방식에 대한 고찰”, 『방송문화연구』 23/2 (2011,12): 7-36.

54) Mitchell Stephens, 『뉴스의 역사』, 440.

55)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 392.

56) <http://fritsahlefeldt.com/2016/06/07/on-the-internet-dog-drawing/>

현대인들은 피터 스타이너의 예리한 통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 혹은앞으로도 소통이 진행되는 모든 공간에는 소통 당사자들의 권력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고, 권력에 대한 비평의식이 없으면 소통 과정 전체가 권력 의지에 의하여 왜곡되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통 매체는 권력으로 부터 결코 중립적일 수 없고,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는 시물라크르 속에는 현실과 다른 이미지를 소통하려는 미디어 권력의 의지가 개입될 수 밖에 없다. 특정한 시공의 환경에 참여하는 참여 당사자들은 반드시 그 시공 환경을 주도하고 소통을 장악하려는 권력 의지를 형성한다.⁵⁷⁾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의하여 형성된 가상 세계와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서로 경쟁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권력이 집중된 정치계이다. 현대인들은 뉴미디어 생태계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과 면대면 상호작용의 기회를 박탈당해서, 실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 지도자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실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정치 지도자의 생각이나 그 삶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일반 대중들에게는 뉴미디어의 가상세계가 제시하는 가공된 시물라크르가 그 지도자의 전체 모습이다.

문제는 CPND로 구성된 뉴미디어 생태계의 소통 네트워크가 점차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소통 참가자들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 미디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권력(권력자 개인이거나 권력집단)의 의지가 미디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겉으로는 소통 참여자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 정신이 미디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대중이 미디어 권력이 주도하는 왜곡된 시물라크르의 통제력에 맞서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실제 현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장감(또는 현존감, sense of presence)과 가상현실 속의 왜곡된 시물라크르로부터 얻는 현장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현실 세계에서 소통을 하거나 상호작용할 때 소통의 당사자들이 확인하는 현장감과 실재감은 특정한 시공의 고유한 물리적인 환경 속에 공존함으로 발생하는 현장감이고 실재감이다. 그 현장감과 실재감은 그 시공의 환경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막연한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다. 소통 당사자가 특정한 시공의 고유한 물리적인 환경 속에 상대방과 함께 공존하면서 면대면 상호작용하여 나누는 소통 사건에서는 머릿 속에서 인식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그 내용이 지시하는 실제 대상 사이에 이상적으로는 소통의 일치도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소통할 때의 자아가 느끼는 현장감과 실재감은 그 느낌이 지시하는 실제 시공의 소통 환경이나 소통 대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현실과 소통할 때는 자아가 상호작용하는 대

57) 김승현 외, “공간, 미디어 및 권력: 새로운 이론틀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3/2 (2007, 12): 82-121.

상은 실제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가상 공간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무관한 현장감이나 실재감을 느낄 수 있다.⁵⁸⁾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체험하는 현장감이나 현존감은 현실 세계에서의 지행합일이나 지행일치의 간격을 제대로 좁혀주지 못한다.⁵⁹⁾ 사이버스페이스 속의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허상의 이미지들이고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시뮬라크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가 증가할수록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거리감도 함께 증가한다.

3. 정보 무력감과 지행불일치

닐 포스트만에 의하면 TV나 인터넷과 같은 전자 미디어 시대 이전에는 정보 수용자 편에서의 정보-행동의 일치도가 매우 높아서, 소통되고 공유되는 정보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행동-가치(action-value)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정보와 이미지들이 무한대로 쏟아지자, 행동-가치가 배제된 정보로 변질되면서 정보 수용자의 실존적인 삶이나 실천적인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보 무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⁶⁰⁾

‘소유와 정기고’가 부르는 ‘썸’이라는 유행가는 현대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현실 속에서 느끼는 초현실적인 기시감과 이로 인한 정보 무력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로 시작되는 썸은 ‘요즘 따라 내 꺼인듯 내 꺼 아닌 내꺼 같은 너. 니 꺼인 듯 니 꺼 아닌 니 꺼 같은 나’ 때문에 ‘헛갈려’하는 현대 청춘의 심리를 잘 보여준다. 이성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싫어하지는 자신의 감정을 확신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사랑과 결혼의 의무감은 현실 세계에서 일종의 롤모델로 존재하는 부모님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사랑과 결혼생활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로부터 학습한 비현실적인 감정이 주도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CPND로 형성된 뉴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이리 저리 표류하는 왜곡된 시뮬라크르가 제공하는 사랑스러운 감정이나

58) 현존감의 영역이나 범위를 좁히다면 가상현실의 현존감은 특정 주제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적인 윤리를 구현하는 거시적인 삶의 지평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현존감의 부정적인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Cf., 이형래,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통한 정보전달 시 뇌의 활성화와 현존감의 관계”, 『인지과학』 17/4 (2006,12): 357-373.

59) 이은선,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natality)의 교육학과 양명의 ‘치량지(致良知) : ‘공적 감각(公的 感覺)’과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인간교육을 위해서”, 『양명학』 18 (2007,07): 5-62.

60) Neil Postman, 95-7.

결혼을 향한 열정이나 의무감은 그 자체로 한결같이 모호하고 자신의 인생과 결혼하려는 상대방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것 같은 확신도 전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제 세계가 제시하는 현존감과 가상공간의 시뮬라크르가 제시하는 환상적인 기시감이나 현존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뮬라크르의 환상이 때로는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와 그 대응 능력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나 무선 인터넷에 빠져드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사회의 소통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휴대전화와 이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한 김성도는 휴대전화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환상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휴대전화가 접근하도록 해 주는 세계가 완전한 객관성이 세계라는 환상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휴대전화가 제시하는 세계는 완전히 주관성으로 이뤄진 개인의 세계일뿐이다.”⁶¹⁾

앞으로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인공지능시대가 열리면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더욱 전방위적으로 물리적인 현실 세계의 생태계를 대체할 것이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인터넷은 마치 생활 속에서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생존에 필수적인 공기처럼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이 구성하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한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제시하는 가상세계와 그 세계에서 매개된 소통에 참여하는 사이버 자아, 그리고 조작된 시뮬라크르는 결코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 현실 세계를 대체하지 못하며, 뉴미디어 생태계가 발전할수록 두 세계 사이의 괴리감과 이질감 역시 증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V. 나가는 말

21세기 한국사회는 거대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전 국민이 CPND로 구성된 미디어 생태계속에서 무한대의 정보와 뉴스 콘텐츠들과 실시간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을 나누면서 물리적인 시공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보 콘텐츠들이 제공하는 현장감과 현존감, 그리고 실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가 걸어온 오랜 역사의 시간과 비교하면 최근 15-20년 어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난 전대미문의 현상이다.

그렇다면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먼저 뉴미디어 생태계 현상을 고찰하

61)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 382.

였다. 그 결과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콘텐츠(Contents)와,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디바이스(Device)의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치사슬체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CPND의 가치사슬체계는 뉴스와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대의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되 여기에 더하여 정보가 가지는 현장감과 현존감, 그리고 실재감까지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설교하고 확산하는 책임을 맡은 목회자들은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 신자들을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안내하여 그 나라의 통치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두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 한국 사회의 소통 구조에 미친 영향을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쇠퇴와 영적인 설득력 구조의 붕괴, 그리고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양극화 심화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의사소통과 설득을 위해서는 권위가 중요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는 전통적인 권위 구조와 설득력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현대인들의 설득력 기제의 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권위 구조나 설득력 구조를 따르지 않고 뉴미디어의 가치사슬체계를 채우고 있는 가공된 시뮬라크르 이미지들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생태학자들의 지적에 의하면 가상공간이 제공하는 가상현실과의 상호작용이나 교감은 면대면 상호작용이 아니라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에 불과하며 그 속에서 교감을 나누는 인격체 역시 역사 현실을 살아가는 실제 인격체를 모방하는 사이버 자아인 아바타(avatar)이거나 그 세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이미지들 역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초현실의 이미지들인 시뮬라크르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제 현실과 가상 현실의 괴리감이 점차 심화되고 정보 무력감도 더욱 깊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독교 설교의 전략은 무엇일까? 다음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그 해답을 모색할 차례이다.

[참고문헌]

- Benjamin, Walter.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2』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 Berger, Peter. *A Far Glory*. New York: Anchor Books, 1992.
- Berger, Peter. *The heretical imperative*. 서광선 역. 『이단의 시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1.
- Casey Man Kong Lum. 이동후 역. 『미디어 생태학 사상』 서울: 한나래출판사, 2008.
- Dempsey, Ron D., 김순일 역. 『성경만큼이나 관심있게 보아야 할 교회 밖 풍경』 서울: 요단, 2004.
- Fang, I. *A History of Mass Communication: Six Information Revolutions*. 심길중 역.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역사: 6단계 정보혁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 Flusser, V. 김성재 역. 『피상성 예찬: 매체 현상학을 위하여』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5.
- Gibson, William. *Newromancer*. 김창규 역. 『뉴로맨서』 서울: 황금가지, 2005.
- Giddens, Anthony. *Sociology*. 김미숙 공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2.
- Innis, Harold. *Empire and Communication* Toronto: Dundurn Press, 2007.
- Ling, Rich. *How Mobile Communication is Reshaping Social Cohesion*. 배진환 역. 『모바일 미디어와 새로운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출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Luhmann, Niklas. *The Reality of the Mass Media*. trans. Kathleen Cros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2000.
- Osmer, Richard. *Practical Theology : An Introduction*. 김현애, 김정형 공역.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 서울:WPA, 2012.
- Postman, Neil. *Technopoly*. 김균 역. 『테크노폴리: 기술에 정복당한 오늘의 문화』 서울: 궁리출판, 2009.
- Postman, Neil. *Amusing Ourselves to Death: Public Discourse in the Age of Show Business*. 정탁영 공역. 『죽도록 즐기기』 서울: 참미디어, 1997.
- Quicke, Michael. *360-Degree Preaching*. 이승진 역. 『전방위 설교』 서울: CLC, 2012.
- Reid, Robert Stephen. *The Four Voices of Preaching: Connecting Purpose and Identity Behind the Pulpit*.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6.
- Rifkin, Jeremy.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안진환 역. 『3차 산업혁명: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민음사, 2012.

- Schultze, Quentin J. *American Evangelicals and the Mass Media* Grand Rapids: Zondervan, 1990.
- Schwab, Klaus. 송경진 역.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 Stephens, Mitchell. 이광재, 이인희 역. 『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 Watson, Alexander John. *Marginal Man: The Dark Vision of Harold Innis*.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2006.
- Wells, David. *No Place for Truth*. 김재영 역. 『신학실종』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 강내원. “시민의 매체 이용과 언론사에 대한 신뢰: 매체별 이용패턴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3 (2010,9): 5-46.
- 고원석.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장신논단』 41 (2011, 7): 289-314.
- 권혁인, 나운빈. “CPND 생태계 관점의 전자책 시장 활성화 요인 연구: 출판사 실무자 AHP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13/4 (2015,4): 51-59.
- 김명찬. “새로운 모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색”. 『신학과 실천』24 (2010년 9월): 337-365.
- 김문조. 『융합사회의 소통양식 변화와 사회진화 방향 연구』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신학과 실천』 49 (2016, 5): 159-184.
-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김승현 외 “공간, 미디어 및 권력: 새로운 이론틀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3/2 (2007, 12): 82-121.
- 김영주 “신문산업의 위기와 사업다각화: 신문사의 뉴미디어 사업 진출 현황과 의미”. 『관훈저널』 95 (2005,6): 11-20.
- 김유석. “미디어 생태계의 평형상태를 위하여: 분해자로서의 소비자를 위하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4): 3-18.
- 김형우. “1인 가구와 방송 트렌드 변화; 먹방, 쿡방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교육』 5/1 (2015. 06.): 152-170.
- 문영빈 “정보미디어시대의 종교학의 새 지평: 매체학, 인지과학, 시스템이론의 창조적 융합”. 『종교연구』 52 (2008년 9월): 191-228.
- 문영빈. “뉴미디어, 종교체험, 예배: 가상체험의 매체신학적 조명”. 『기독교교육정보』 25 (2010, 4): 227-260.
- 민장배. “미디어를 통한 신앙 교육 활성화 방안”. 『신학과 실천』48 (2016, 02):

- 495-518.
- 송종길. “매체별 신뢰도의 유사성 및 차별성 분석 연구: 기자와 수용자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2 (2007,4): 180-202.
- 신광영. “한국의 민주화, 시장화와 언론노조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57 (2012.02): 69-83.
- 신은화. “포르노그래피 중독과 치유”. 『인간연구』 33 (2017, 01): 171-204.
- 윤영훈. “복음주의 운동의 대중적 문화 미디어 필그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8/1 (2010, 4): 81-105.
- 윤태진. “정서적 참여와 실재의 재구성: 한국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의 작동방식에 대한 고찰”. 『방송문화연구』 23/2 (2011,12): 7-36.
- 이기상. “현상과 미디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존재론 연구』 30 (2012): 1-34.
- 이동후. “뉴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생태학의 지적 실천과 함의”. 『한국방송학보』 29(5) (2015,9): 32-66.
- 이성우. “새로운 산업혁명과 국제정치질서의 전망”. 『국제정치논총』 57/1 (2017,03): 313-346.
- 이승진.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설교 생태계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27 (2013): 301-334.
- 이연호, 조화순. 『가상현실 내에서의 사회구조의 형성과 변화』 서울: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08.
- 이유섭.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하여”. 『한국라깡과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2014, 11): 45-62.
- 이은선.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natality)의 교육학과 양명의 치량지(致良知) : 공적 감각(公的 感覺)과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인간교육을 위해서”. 『양명학』 18 (2007,07): 5-62.
- 이종윤, 윤주현. “역할 이론을 활용한 아바타의 사례 연구”. 『sigforum』 (2011,12): 174-191.
- 이주아. “한국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 (2012.10): 351-375.
- 이처문. “미국과 한국의 뉴미디어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한국 선거에서의 인터넷과 SNS 활용과 변천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6,05): 167-187.
- 이형래.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통한 정보전달 시 뇌의 활성화와 현존감의 관계”. 『인지과학』 17/4 (2006,12): 357-373.
- 이호규. “주체형성 장치로서의 가상공간과 커뮤니케이션 모델: 르페브르와 푸코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2) (2010.06): 173-213.
- 인남식. “2011 아랍 정치변동의 성격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51/4 (2011,12):

237-254.

- 정법근. “사물인터넷 시대의 C-P-N-D 생태계 동향”. 『정보통신방송정책』 27/3 (594) (2015.02): 29-30.
- 조성호.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의 특성과 기독교 영성의 상관관계 연구”. 『신학과 실천』 46 (2015, 9): 385-412.
- 조항제.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 정부와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6 (2001.05): 168-206.
- 최창현. “C-P-N-D 생태계와 IC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3 (2014): 7-16.
- 한재동. “통합과 귀납의 패러다임, 실천신학의 실천신학적 이해”. 『신학과 실천』 35 (2013, 05):43-88.
- 홍석경. “전환기 한국 방송의 이데올로기: 민주화, 시청률, 중산층”. 『문학과 사회』 2/2 (1989.05): 673-691.
- 황지태 외.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Abstract]

An ecological influence of the new media ecosystem
upon the Christian communication environment.

This paper has examined an epistemological influence of the new media ecosystem upon the Christian communication environment. The former part of the study has focused upon the new media ecosystem and its components, and the later part the media ecological influence upon the Christian communication environment.

New media ecosystem is the communicative value chain network in which contents, platform, network, and device are related and interactive together. This communicative value chain network of CPND supplies the infinite information and contents to the people who want to consume the real time news and contents beyond the limit of time and space. Moreover this information network gives them a sense of presence and reality by the new media contents.

Then, what is the ecological influence of the new media ecosystem upon the Christian communication environment? Due to the new media

ecosystem, the traditional authority structure and the spiritual plausibility structure have become weak, and epistemological tension between real reality and virtual reality has become deepen. Authority system and persuasive structure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effective persuasion. However, new media ecosystem has shaken the traditional authority system and the persuasive structure, and has occupied the empty mindset of the contemporary people. The contemporary people does not admit the traditional authoritative structure and persuasive system anymore. They are more influenced by the artificial simulacre images filled with the new media value chain system.

In spite of the massive influence of the new media ecosystem, the interaction with the virtual reality in the virtual space is not the real face to face personal interaction but the mediated quasi-interaction with the artificial images of simulacre. And these mediated interaction with the artificial images is nothing but the surreal interaction with the surreal images of simulacre. Because the new media ecosystem has widened the epistemological gap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artificial world of the new media, a feeling of dissociation from the real world and a feeling of helplessness about the surreal contents become deepen in spite of the fast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Key Words] : New media ecosystem, virtual reality, fact to face interaction, mediated quasi-interaction, simulacre, sense of presence, plausibility structure.

[논평]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평

김영태 (원주신촌교회)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다 아는대로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해 였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인 것은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워밍업이었다. 루터가 1521년 보름스 의회에 소환당한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도피해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본격적인 개혁의 점화라 할 것이다. 1522년에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평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루터의 번역성경이 나온 사건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당시 성경이 없던 평신도들은 손에 들린 성경을 보고 만지작거리며 기뻐하기를 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어떨까? 다시 성경없이 빈손으로 예배 출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를 통한 발달로 손에 든 스마트폰이나 화려한 영상물 앞에 함몰되어 자판위의 손가락으로 예배하는 풍경을 흔히 보게 된다. 목회자들은 신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가르치기도 전에 SNS와 미디어 매체로 거듭나라고 가르쳐야할 형국이다.

교회는 미디어시대를 맞아 이에 더 잘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 더 앞서 나가야 할 것인지 항상 고민의 길에 서 있다. 특히 예배, 그중 예배안의 설교에서는 더욱 그렇다. 미디어는 그것을 잘 활용하던, 덜하던, 안하던 간에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는 소통(communication)의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미디어 세계와 현실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독교적 의사소통을 위한 바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승진 박사는 이에 대한 복잡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정의되거나 연결점을 좀처럼 찾기 힘든 연구를 잘 시도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는 오늘의 소통매개의 시대를 미디어 이전시대, 미디어 시대를 넘어 하이미디어 시대 즉 미디어 융합시대인 뉴미디어 시대라 규정하면서, 뉴미디어 생태계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규모의 의사소통 환경에 처해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뉴미디어 생태계는 기독교 고유의 현실세계의 의사소통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특징은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도해 주고 있고, 그 환경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가공된 시뮬라크르 이

미지라는 우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기독교적 의사소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예배안에서의 설교가치가 바르게 설득되기를 열망하는 연구자의 고뇌 섞인 흔적에 공감하며 유익하게 읽었음을 밝힌다.

2. 본 논문의 논지와 주요 내용

이승진 박사는 본 논문을 통해 전반부에서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을 서술하였고, 후반부에서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논지는 현대사회가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처해있어, 어쩔 수 없이 기독교적 가치사슬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좀 톰슨의 주장에 기대서, 뉴미디어 생태계는 가상현실 안에서 '매개된 의사-상호소통'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에서 연구자는 인류의 역사를 의사소통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현대는 융복합 하이미디어 또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형성된 시대라고 규정한다.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라는 소통의 세계는 한국사회의 사고와 생활양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한국의 기독교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도록 전달해야 할지를 설교학적 관점에서 풀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따른 한국인들의 사고와 생활양식의 변화, 특히 기독교적 의사소통이나 설교의 전달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있는지 선행 연구들을 소개해 주었다. (본 연구물 제Ⅱ장,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참조) 이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뉴미디어 생태계에 관련한 종교학의 새로운 프레임 접근, 기독교교육적 관점, 문화나 기독교 영성의 상관성, 인공지능(AI)시대에서의 예배공동체의 역할 등이 부분적으로 연구되었지만, 기독교적인 의사소통부분을 취급한 연구가 거의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뉴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이 기독교적 의사소통에 끼친 영향과 그 속에서의 효과적인 설교전략에 대해 깊이 연구하되, 리처드 오스머(Richard Osmer)의 실천신학적 연구방법론 즉 서술과 분석, 규범과 전략의 단계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뉴미디어 생태계의 환경의 실상과 파급력을 서술하였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정보통신 기술력의 환경, 즉 뉴미디어 환경 형성은 CPND로 집약되는데, 이는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ivice)의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무한대의 의사소통을 위한 생태계 환경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융합의 소통 연결망 즉, 뉴미디어 생태계환경은 현실세계 안에서 또다른 가상세계(사이버스페이스)를 만들어 냈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많은 정보콘텐츠를 빛의 속도와도 같은 이 가상공간속에서 얻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변화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위력은 물리적인 시공간의 현실세계가 아니라, 미디어가 매개가 되어 구성된 또다른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특정 시공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컴퓨터 매트릭스 속으로 몰입되어 그 속에서도 또 물리적인 시공간의 생태계 환경처럼 자유로운 인식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환경을 가리켜서 가상공간(virtual space), 그속에서 접촉하는 상호작용의 대상을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 부를 수 있다. 현대인들은 바로 이 뉴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를 통해 소통하고, 그 가상공간속에 존재하는 가상현실과 소통한다.

현대인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존 톰슨에 따르면, 면대면 상호작용, 매개된 상호작용이라는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있는데, 현대인은 물리적인 시공간의 현실세계와 직접소통하지 않고, 뉴미디어 네트워킹을 통해 매개된 현실과 소통하는데 이것을 “매개된 의사-상호작용”(mediated quasi-interaction이라 부른다. 매개된 현실세계는 물리적인 시공간으로 구성된 현실세계와는 전혀 다른 무한대의 세상이며, 가상공간에서 매개된 의사-상호소통을 나누는 주체는 아바타(avatar)와 같은 사이버 자아(cyber self)라 할 수 있다.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속의 현대인들은 면대면, 혹은 매개된 상호소통이 아닌, 사이버 자아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뉴미디어 생태계안의 사이버 자아들끼리 매개된 의사소통을 나눈다면 그러한 소통, 즉 가상공간이 만들어 낸 가상현실의 소통이 과연 진정한 소통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가상 공간속의 아바타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공적 존재 대상인 시물라크르(simulacre)라고 본다. 문제는 이 시물라크르 이미지에 현대인들은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뉴미디어 생태계의 매개된 실재와 가상공간(세계)에서의 시물라크르의 이미지들은 기독교적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은 기독교 진리의 전달에 있어 중요한 인식론적 과제를 부여한다고 강조한다.

넷째,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기독교적 소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3가지로 분석하며, 살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을 정착시키던 전통적인 설득력구조의 쇠퇴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세계와 가상현실의 괴리감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즉 가상세계가 제공하는 실재감이나 현장감, 현존감은 실제 현실세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로, 무한대의 정보는 오히려 행동-가치에의 변질과 정보 무력감을 주고, 지행불일치를 준다.

다섯째, 연구자는 나가는 말을 통해, 21세기 한국사회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면서, 현실과 가상세계 사이의 심화되어가는 괴리감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기독교적인 소통차원의 설교전략을 펼쳐야 할지 후속연구를 진행할 것을 언급하며 글을 마쳤다.

3. 본 연구의 공헌점과 기타 마무리 내용

1) 본 연구의 공헌점

첫째, 연구내용을 취급하면서, 다소 생소한 정보기술적 전문적인 용어와 기능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이해를 설명해 줌으로써 글의 흐름이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아주 유익하였다.

둘째, 의사소통의 발현이 적용되어야 할 기독교 진리와 복음전파 사명을 위해 현대의 소통(communication) 스피릿의 현실과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설교학자로서 설교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인격체로서 설교자들의 설교가 먹히지 않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서 바르게 전달되어야 할 설교자들의 고충에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역력하다.

셋째, 실천신학 분야로는 보기 드물게 소통의 도구로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그 환경이 기독교적 의사소통에 끼친 영향을 고찰해 냄으로서 현대 교회가 당면한 소통의 인식론적 대응을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야함을 역설해 주었다. 이것은 대화와 만남을 통한 소통을 강조하고 적용해야 하는 기독교 예배와 설교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가치 있는 과업이라 본다.

넷째, 연구자의 논고에서 밝히고 있듯이, 뉴미디어 생태계는 어느나라이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천신학적 대응은 교회와 신학자들의 필수과제로 등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실정은 이런 분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무지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타 종교학, 기독교교육학, 문화인류학과 같은 분야에서의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을 잘 소개해 줌으로서, 실천신학적 대응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펼쳐주는 수고를 해 주었다.

다섯째,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기독교적 소통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명한 논지와 입장을 밝혀주었다. 즉 연구자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대해 막연한 수용이나 전이에 함몰될 것을 우려를 하였다. 그 이유로 뉴미디어 생태계는 결국, 가상공간(virtual space)이며, 그속에서 접촉하는 상호작용의 대상 역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고, 가상현실에서의 자아는 아바타(avatar) 혹은 사이버 자아, 가상의 인격체이거나 시뮬라크르(simulacre, 가공물, 가상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는 불일치와 괴리감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이러한 입장은 오늘의 현대사회의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대한 평소의 깊은 관심과 한국교회의 위기감속에서 함께 속히 풀어가야할 절박감을 토로한 것 같아, 그에게서 한국교회를 향한 고뇌와 열정을 엿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들게 해주었다.

여섯째,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 소통환경에 미친 영향을 3가지로 제시함

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전파의 최선봉에 서있는 예배와 설교환경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제시해주었다. 아울러, 연구자는 이에 대해 설교학자로서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설교사역의 전략을 후속적 연구를 필요성을 언급해주었다.

2) 아쉬운 점과 보완점

첫째, 뉴미디어 생태계의 영향하에서 달라진 한국인의 사고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뉴미디어 생태환경이 주는 우려와 심화감을 강조하는데 할애를 많이 해주었는데,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거스릴 수만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뉴미디어가 주는 유익과 긍정적 가치 등을 조금 더 소개하면서, 선별적 필요성부분까지 다루어 주었다면 뉴미디어에 대한 균형과 객관적 판단을 하는데 유익하지 않았을까 싶다. 예를 들면, 마셜 맥루한은 미디어를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수단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소통감각의 확장으로 인정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수용하고 있으며, 사회학자 앤서니기든스는 미디어의 기능주의적 입장을 소개해 주면서, 그 유익으로 정보, 상관관계, 지속성, 오락, 사회적 동원 등이 있다고 언급한다.⁶²⁾

셋째, 연구자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CPND)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그 환경이 기독교적 의사소통 환경에 끼친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대체로 우려가 되는 관점을 강조하여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기독교적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과 목회 현장(예배와 설교등)에서의 기독교 의사소통의 실제 부분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신학적 근거를 제시, 설명해 주었다면 본 연구의 논지에 대한 해답(방안)을 위한 많은 실마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3) 몇 가지 질의내용

1. 존 페리 발로우에 따르면, 뉴미디어 생태계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인간의 완전한 자유와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실세계의 자아와 가상세계의 자아(두개의 자아?)의 의사소통도 참된 의사소통이라 봐야 하는 것인지? 그 거리감을 누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자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하다.

2.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으로,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쇠퇴'와 '영적인 설득력 구조의 붕괴'라 분석했는데, 이러한 입장은 뉴미디어

62)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공역(서울: 을유문화사, 2011), 633.

어 생태환경이 그만큼 오늘날 교회의 소통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것은 다소 지나친 비약 아닐까? (cf. 최근의 예배학의 흐름은 오히려 고대-미래교회의 소통과 융합을 지향하면서 역사적 전통, 예전성의 회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띄기도 한다.)

3. 연구자는 인간의 의사소통과 정보수집의 확산과 신뢰는 미디어 생태계(가상 세계)로는 결국, 현실세계와 일치하지도 않고, 아우라가 없으므로 믿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환경속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적 소통과 설교의 전략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가상세계의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을 벗어난 전략을 도출하겠다는 것인지,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제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현실세계에 영향을 직접 제공하는 가상현실의 실재감과 현장감도 사실적 소통일 경우도 있지 않은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4. 이미 미디어생태계에 함몰되었거나 차용하고 있는 기독교적 의사소통의 전략적 유통자산들(사이버상의 설교, 기독교적 이미지 등) 대한 입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린다.

논평을 마치며

현대교회는 이제 철학적, 문화적, 신학적 사조만이 아닌, 무거운 과업이지만 피할 수 없는 정보기술적 이해를 포함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을 이해시켜 주고, 적절한 기독교적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승진 박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발표2]

설교를 통해 본 한국 개신교회의 사사화(私事化)

강일구 (선한목자교회 소속목사)

1. 들어가는 말

기독교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성을 근본적인 신학과 실천으로 가진다. 기독교 초기 선교 이후, 소수에 불과했던 기독교는 다원화된 세계를 극복하고, 선교 300년 만에 로마제국을 기독교화 했으며, 그 이후 기독교의 가치와 문화가 서구의 모든 사회를 규정하는 통일을 이뤘다. 그러나 중세 이후, 근대의 과정을 거친 오늘날의 교회는 사회적 영향력을 잃고 세속화되었으며, 교회 자체적으로도 ‘공동체 정신과 삶’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교회를 세우셨으나, 교회가 만민을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며, 민족들이 제자 공동체로 변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민족들 속으로 용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¹⁾

무엇보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회에서의 객관적 지위를 상실하고, 오직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종교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²⁾가 종교사회학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사화된 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 기능을 잃고, 사람들의 선호에 적응하게 되었다. 소위 복음의 상품화로 대표되는 ‘설교의 사사화’는 오늘날 교회를 더욱 세속화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교회 역사상 위축된 시기는 항상 설교가 쇠퇴했던 때임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교회 역사상 위대한 운동이 일어날 것을 알렸던 전조 현상은 언제나 참된 설교가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한다.³⁾ 그런 면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영향을 교회가 주고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⁴⁾

개신교 신학은 공동체로서 교회의 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곳에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이 말씀과 함께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학으로 서 있다. 여기에서 오늘날

1) 게르하르트 로프크, 「산상 설교는 누구에게?」 정한교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8), 212.

2) ‘사사화’란 용어의 낯설 때문에 정재영은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종교의 사적 영역으로의 퇴거”라고 하였으며, 맥과이어의 「종교사회학」을 번역한 김기대와 최중열은 “사생활화”라고 번역했다.

3)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옮김 (증보판; 서울: 복 있는 사람, 2015), 43.

4) 김운용, “21세기 한국 교회의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한 설교신학 재고(再考)”, 「국제학술대회」 vol.12 (2011): 117.

기독교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사사화’ 현상이 발생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다. 신앙을 형성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목회사역인 ‘설교’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며,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의 사사화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중심에 ‘설교의 사사화’가 있음을 살펴 보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백성공동체’로서 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한다.

2. 기독교 공동체와 사사화 현상

오늘날 한국교회의 ‘공공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공공신학’이 소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재영은 “신학은 당연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사로운 신학(private theology)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낮설고 이상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말이 공동체라는 표현과 무관하지 않은데, 교인들이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공동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⁵⁾

공동체를 연구하는 이들과 같이 길버트 빌지키언은 공동체를 인간의 본래적인 것으로 보지만, 그 원형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다. 하나 됨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방식이며,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 결과이므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근본적이고 영원한 모습을 반영한다.”고 말한다.⁶⁾ 삼위일체적 영성의 진정한 중심은 교회⁷⁾라고 말하는 사이몬 찬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튼튼해질수록, 그리고 사랑 안에서 완전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일체감이 강화된다고 한다.⁸⁾ 초기 기독교의 발흥을 연구한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성장 이유는 기적이나 콘스탄틴의 선교 천명, 혹은 순교자들이 기독교의 신뢰도를 높인 것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치열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⁹⁾ 동시에 기독교는 “바깥을 향하여 경계선들을 뛰어넘으려” 힘썼다.¹⁰⁾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서 새 백성인 교회를 모으신 것은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달하고자 하시기 때문이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¹¹⁾ 그러므로

5) 강영안 외,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새로운 한국교회를 위한 20가지 핵심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346-348.

6) 길버트 빌지키언, 「공동체 101」 두란노 출판부 옮김 (서울: 두란노, 1998), 17-18.

7) 사이몬 찬, 「영성 신학」 김병오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3), 69.

8) 위의 책, 145.

9)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옮김 (서울: 좋은씨앗, 2015), 311-312. 이와 같은 것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이념이 지향한 공동체의 원형’,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면서 추구한 구체적인 생활공동체로서 교회의 원래 모델’이다.

10) 게르하르트 로핑크,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5), 194.

삼위일체 하나님에 바탕을 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곧 공적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공적 영성’을 형성한다.¹²⁾ “공적(public)이란 사적(private)·이기적(selfish)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 참여와 책임”을 말한다.¹³⁾ 실제로 초기 기독교의 이러한 공동체성은 비신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어, 그리스도교가 급속하게 확장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¹⁴⁾ 이러한 기독교는 마침내 서구의 세계를 통일하였고, 기독교는 공적 종교가 되었다. 루크만은 이에 대해서 말하길, 기독교가 ‘다원적인’ 경쟁의 상황에서 승리하였고, 마침내 중세에 이르러 거룩한 세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전문화된 제도적 기초를 이뤘다는 것이다.¹⁵⁾

이러한 구원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중심성을 가진다. ‘기독교는 그 본질에 있어서 말씀의 종교’이며, 복음의 선포로서 설교는 회중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세워가는 사역이다. 그런 면에서 설교는 개인의 심령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설교를 통해 형성되는 신앙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대안 공동체’이다. 브루그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 형성에 중요함을 말한다. 그는 “사회의 모든 현실은 말씀으로 새롭게 솟아난다는 관념이 예언자가 현실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고 말한다.¹⁶⁾ 개신교 신학은 공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선포와 교회공동체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다. 루터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말씀의 표지를 우선시했다. 루터교회는 교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유일하고 거룩한 교회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며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성도의 회중이 교회입니다.”¹⁷⁾ 이러한 교회에 대한 신학은 칼빈에게서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칼빈은 신자의 출생과 양육, 그리고 보호가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는 “그 보살핌과 인도 아래 우리를 지키지 않는 한, 우리가 생명 속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¹⁸⁾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오로

11) 왈벗 뵈만, 「선민과 만민: 선택사상의 재음미에 의한 선교자세의 재정립」 정한교 율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3), 100.

12)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140.

13) 위의 책, 62.

14) 게르하르트 로핑크,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270. 이러한 기독교의 사회적인 사랑의 실천이 기독교의 성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로드니 스타크는 2세기와 3세기에 발생한 거대한 역병이 로마제국에 큰 타격을 입힐 때,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돌봄과 기독교 신앙이 주는 인생의 의미부여는 질병으로부터의 생존율을 높일 뿐 아니라, 기독교로의 개종 인구를 증가하게 했음을 밝히고 있다. 로드니 스타크, 1장과 4장을 참고.

15) 토마스 루크만, 「보이지 않는 종교」 이원규 율김 (서울: 기독교문사, 1982), 133.

16) 월터 브루그만, 「예언자적 상상력」 김쾌상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5), 45-46.

17) 지원용 편역, 「신앙고백서」 (서울: 컨콜디아사, 1988), 27.

지 '외적인 설교'¹⁹⁾를 통해서만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오직 그의 '복음을 도구'²⁰⁾로 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될 때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을 한다. 루터는 “그리스도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로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을 낳고 양육한다.”고 말하며, “성령은 복음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을 교회로 이끄신다.”고 말한다.²¹⁾ 하나님은 “수단 없이” 성령을 직접 주시지 않고 수단을 통해, 즉 외적 말씀이 선행한 다음에 성령을 주신다.²²⁾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한, 예수께서 ‘거룩한 공교회’를 ‘자신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불러 모으고 보존하신다고 고백한다.²³⁾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적으로는 공공성을 잃었으며, 기독교 자체적으로는 공동체의 쇠퇴 혹은 공동체성의 상실의 위기 아래에 놓여 있다. 기독교 신앙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종교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라고 말한다.

개인은 개인적 의미체계를 무로부터 창조해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²⁴⁾ 피터 버거와 루크만은 이를 “사회는 인간의 산물이다. 사회는 객관적인 실재이다. 인간은 사회적 산물이다.”라고 말한다.²⁵⁾ 그러기에 이러한 가시성과 구체적인 현실성이 없이는 공동체적인 삶을 형성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 공동체의 네트워크와 관계구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기독교 신앙과 세속주의 사이에서의 경향이 편향되고,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은 이상하게 비치며, 세속주의가 참되다는 인식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²⁶⁾ 정재영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세속화가 만들어낸 결과 중의 하나는 종교의 사사화”라고 말한다.²⁷⁾ 맥과이어는 이러한 사사화를 “분화된 어떤 제도영역들(예컨대 종교, 가족, 레저, 예술)이 지배적인 공적 영역(예컨대 정치적, 경제적, 법적)의 제도들로부터 격리되어 사적 영역으로 퇴행하는 과정”이라고

18) 존 칼빈, 「기독교강요 하」 원광연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14.

19) 위의 책, 18.

20) 위의 책, 15.

21) Martin Luther, "Ten Sermons of the Catechism", Sermons I, *Luther's Works*, vol.55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9; Fifth printing, 1989), 166-167.

22) 파울 알트하우스, 「루터의 신학」 이형기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53-54.

23) 황원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평택: 교회와 성경, 2012), 272.

24) M. B. 맥과이어, 「종교사회학」 김기대·최종렬 옮김 (서울: 민족사, 1994), 50.

25) 피터 버거, 토마스 루크만 공저, 「실재의 사회적 구성: 지식사회학 논고」 하홍규 옮김 (서울: 문학과학지성사, 2015), 102.

26) 데이비드 웰스, 「신학실증」 김재영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148-149.

27) 임성빈 외, 「공공신학: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에로의 초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179.

말한다.²⁸⁾ 이러한 신앙의 사사화 내지는 개인주의화에 대해서 피터 버거는 종교가 정치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실재성이 결여되었으며, 다만 가족과 연관된 사회관계의 영역에서는 “실재성”의 잠재력을 계속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사회생활의 사적인 영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본질적인 특색의 하나는 개인주의화라는 것이다.²⁹⁾ 이원규는 한국 교회 안에도 사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곧 ‘신앙의 문제가 사적인 일이 되어’, “신앙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⁰⁾ 이런 사사화 현상은 오늘날 ‘개인주의’ 현상과 맞물려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³¹⁾ 오늘날 광범위한 공동체 쇠퇴 현상을 야기시키는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는 종교의 사사화와 ‘선택적 친화력’³²⁾을 가짐으로 인해 사사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적인 영역으로 퇴거한 종교가 개인에게 적합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성의 쇠퇴로서 종교의 사사화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공동체를 형성하는 설교에 있어서도 사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설교의 사사화’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이승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향하는 온 열방의 구원에 관한 공동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을 무시하고 그저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안거리를 제공하고 또 청중은 실천은 도외시한 채 설교 메시지를 그저 여흥거리로 소비하여 설교 청취의 문제를 신자 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변질시키

28) M. B. 맥과이어, 401.

29) 피터 버거, 「종교와 사회」 이양구 옮김 (서울: 종로서적주식회사, 1982), 151.

30) 이원규, 「한국 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34. 이러한 현상은 신앙생활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종교를 믿는 이유(일반적 견해)에 대한 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6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복을 받기 위해서(건강, 재물, 성공 등)가 15%,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가 14%,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가 10%의 순이었다. ‘마음의 평안’이나 ‘복’에 대한 응답은 지난 30년간의 조사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36.

31) 퍼트남은 「나홀로 볼링」에서 통해 이러한 현상을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다. 퍼트남의 조사에서 ‘정치참여’, ‘단체활동’, ‘종교적 참여’, ‘직장에서의 연계’,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연계’, ‘이타심, 자원봉사, 자선심’, ‘호혜성, 정직, 신뢰’, ‘소규모 단체, 사회 운동’의 모든 지표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팀에 가입해서 어울려 치는 리그 볼링과 같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웰스도 「신학실종」에서 이러한 공동체 쇠퇴를 설명한다.

32) “선택적 친화력”은 막스베버가 사용한 개념으로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가 서로 “친화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는 “비현세적이고 금욕적인 태도로 신앙에 열중하는 것과, 자본주의적 영리생활에 관계하는 것은 대립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내면적인 친화관계(親和關係, Verwandtschaft)에 있다는 것이다.”라고 한다(막스베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현욱 옮김 (2판; 서울: 동서문화사, 2009), 20-21.). 보통은 “선택적 친화력”이라고 하나, 여기서 번역자는 “내면적인 친화관계”라고 번역했고, 또 다른 번역서에는 “내적 친근성” 혹은 “내적인 친화성”이라고도 번역했다.

는”³³⁾ 것.

이승진은 “설교 행위와 설교 소통의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은 “한 개인의 취사선택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사회와 차별성을 갖는 대안 공동체의 형성과 이를 통한 일반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사사화된 설교는 “그저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설득력 구조 하나를 선택하고 더 효과적인 심리적 기제 하나를 소비하는 개인의 선택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라는 것이다.³⁴⁾ 이승진은 “성경적인 설교나 공동체 지향적인 설교보다는 개인의 내면 심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거나 정서적인 위안을 제공하는 사사화된 설교 메시지가 점점 부각”되고 있다고 말한다.³⁵⁾ 정창균은 “듣기 좋고, 편안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하나님으로 설교하는 것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말하며,³⁶⁾ “청중의 기복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설교 철학에 입각하여 설교를 한 결과”로 “소위 부와 건강, 성공의 복음이라 불리는 축복 중심의 기복 설교가 극성을 부리며 강단 설교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 말하고 있다.³⁷⁾ 이승진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개인주의 설교’(individualistic preaching)가 강단에서 심화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수용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의 문제가 아닌 신자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변질되는 복음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 of the Gospel)로 나타나게 됨을 지적한다.³⁸⁾ 사사화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를 통해 전 인류와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망각하여 한 개인의 감정과 삶으로 신앙을 축소시키고 만다. 또한 사사화된 설교의 내용 역시 개인의 사적인 ‘성공’이나 ‘축복’에 국한되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공동체성과 사명을 잃고 소비적인 헛된 삶으로 끌어갈 뿐이다. 이런 ‘사사화된 설교’의 현상이 한국교회 강단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3) 이승진, “한국교회 설교의 사사화(私事化)와 공동체 지향적 설교”, 『성경과 신학』 제67권 (2013):35.

34) 위의 책, 51.

35) 위의 책, 51.

36) 정창균, “한국 교회 설교의 본문 이탈 현상과 주제의 편향성”, 『헤르메네아 투데이』 제54호 (2012. 가을): 74.

37) 위의 책, 77. 이러한 현실은 실제의 설문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정장복의 설교에 관한 설문 가운데 ‘기복 중심의 설교 문제’에 관해 조사를 했는데, 그는 한국 강단의 ‘기복 중심의 메시지’가 회중들의 회구에서 오는 것인지 설교자가 스스로 끌고 가는 현상인지를 물었다. “설교의 내용 중 기복사상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라는 물음에 ‘적당히 있어야 한다’는 일반 신자의 응답은 60.7%, ‘많을수록 좋다’에 8.7%가 응답해, ‘가급적 피해야 한다’(16.0%)와 ‘적을수록 좋다’(11.8%)에 대한 응답보다 월등히 많았다(정장복, 180-181.).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목회와 신학에서 실시한 “한국 교회 설교 분석”에서도 나타났는데, 설교의 성격을 평가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61.1%는 주로 ‘격려, 위로, 축복’의 메시지를, 12.4%만이 ‘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목회와 신학 편집부, 『한국 교회 설교 분석』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31.).

38) 이승진, 『교회를 세우는 설교목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213.

3. 한국 개신교 설교의 사사화의 원인

종교가 공공체성을 잃어버리고 사사화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이 주요 원인에 세속화와 다원주의가 있음을 볼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종교가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세속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게 된다. 윌슨은 현대 종교사회학에서 세속화를 중심 논제로 제시하였는데, 그는 세속화를 정의하기를 “종교적 사고, 의식 및 기구들이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잃게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³⁹⁾ 즉, 세속화란 “종교 자체의 쇠퇴가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들에 대한 종교 영향력의 쇠퇴”라는 것이다.⁴⁰⁾ 루크만은 종교의 ‘공식적’ 유형과 ‘궁극적’으로 중요한 지배적인 개인적 체계들 사이의 일치성 (congruence)이 교회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교회와 종교의 근사(近似)한 동일성의 구조적 기초가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절대 군주 시대의 교회-국가 관계, “종교 전쟁들”(Religious Wars)의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 종파들(sects)의 성행, 과학적 사고의 발전과 그것의 삶과 세계에 대한 철학적인 그리고-점차적으로-일반적인 개념들에 대한 영향, 프랑스 혁명과 그것에 대한 구교와 신교의 전통주의와 “자유주의” 운동들에서의 반동들, 산업 혁명의 사회적 결과들과 노동자 계급의 출현, 그리고 이념적으로 구성된 정치 정당들의 등장, 성서 비평과 그것의 신학에 대한 영향 등은 지나친 단순화(oversimplification)의 위험을 입증하고 있다.⁴¹⁾

이러한 제반 과정들은 기독교가 다원적인 세상에서 이뤘던 제도적 전문화와 의무적 거룩한 세계의 규정에 대한 독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⁴²⁾ 한국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세속화된 사회 속에 선교된 개신교는 선교 초기 ‘사회 변혁적’ 세력으로서 변화의 주체였으나 이후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 종교적인 본래적 성격을 잃거나 변질되어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소위 ‘세속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개신교가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데에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현상들이

39) Bryan R. Wilson,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148. 박영신, 정재영 공저, 239에서 재인용.

40) Bryan R. Wilson, *Religion in Secular Societ: A Sociological Comment* (Baltimore: Penguin Books, 1944), 14. 로버트 우스노우, 「기독교와 시민사회」 정재영·이승훈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55에서 재인용. 그러나 윌슨은 종교 자체의 쇠퇴도 말하고 있다.

41) 토마스 루크만, 134-135.

42) 위의 책, 135.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⁴³⁾

종교의 세속화로 말미암아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은 종교와 경쟁하는 다원주의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⁴⁴⁾ 이러한 상황은 버거에 의하면 ‘비종교적인 적대자들과 경쟁’하는 상황으로서, 여기에는 세계를 규정하는 기획에 있어서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거나(혁명, 민족주의 여러 이데올로기 운동들), 제도적으로 훨씬 확산되어 있는 가치체계(개인주의, 성해방 등의 근대적 가치체계)도 포함된다.⁴⁵⁾ 결국 교회는 많은 제도들 가운데 하나의 제도가 되었고,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사적인 생활의 영역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에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문제다. 김병서는 “현대사회는 지대한 복잡성으로 인해 다원성이 확대되었고 그 다원성은 의식의 세계, 신앙의 세계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하며, “한국 교인의 종교적 사고와 종교생활도 근대성의 다원화 과정의 영향을 입고 그 전통의 권위가 상실되고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부식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⁴⁶⁾

이러한 사회적인 다원주의 상황, 그리고 종교의 다원주의 상황은 상호 경쟁하는 설득력 구조의 수를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다원주의적 상황은 설득력 구조의 종교적 내용들을 상대화(relativization)시켜 버린다. 즉 종교는 이제 코스모스나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실존(Existenz)이나 심리와 관련되고 있다.⁴⁷⁾ 종교가 개인을 규정하던 상황에서 개인이 종교를 규정하는 상황으로, 종교가 개인에게 권위를 가지고 정체성과 세계관을 규정해 주었던 것에서 개인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선호’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때만큼이나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⁴⁸⁾

다원주의적 상황의 영향은 종교의 사회 구조적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 내용, 즉 종교적 시장 기관의 상품에도 미친다.⁴⁹⁾ 즉 신학적 내용이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유행의 주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설교, 예배, 각종 교회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다원주의 상황은 ‘시장상황’을 초래한다. 즉 과거에는 종교가 독점적인 것으로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거룩한 세계와 세계관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다원화된

43)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측정 결과도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다. “2017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조사’ 결과 신뢰한다는 의견에 20.2%의 낮은 응답이 나와 국민 10명중 2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32.9%), 불교(21.3%)에 이어 18.9%로 개신교가 가장 낮았다

44) 여기서 다원주의(pluralism)는 어떤 단일의 세계관도 정당성을 독점하지 못하는 사회적 상황을 말한다.

45) 피터 버거, 155.

46) 김병서, 「한국사회와 개신교: 종교사회학적 접근」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5), 31.

47) 피터 버거, 167-168.

48) 위의 책, 152.

49) 위의 책, 161.

세계와 세계관이 존재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 속에서 종교는 다양한 제도들 가운데 하나로서 존재하고, 전에는 권위 있게 부과되었던 종교적 전통이 이제는 더 이상 '구매'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매'해야 하는 시장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⁵⁰⁾ 이러한 시장상황은 소비자에게 구매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만든다. 다윈주의 상황에서 종교 전통이 진리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이 선호하는 것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⁵¹⁾

오늘 한국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적인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원규는 종교 시장 상황에서 판매자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위 '복음의 상품화' 현상을 드러내는데, 각종 전략과 방법을 통해서 복음의 선전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다.⁵²⁾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복음의 원래적 의미에서 떠나 비성서적, 비신앙적 포장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⁵³⁾ 지나친 광고와 선전으로 복음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의 상품화의 전형적인 모습은 기복신앙이다.

이러한 현상이 설교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설교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적인 내용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 사적인 영역으로의 퇴거가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 속에서 신앙은 공동체적이고 공적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이며 사적인 것이 될 뿐이다. 오늘날 설교에 있어서 '사사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선호가 중요하게 된 현실에 적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설교가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시대적 조류를 따라감으로써 본래적인 기능을 상실하거나, 그 기능이 훼손된 것이다. 다원화된 세상, 공동체의 상실과 쇠퇴 속에서 개체화된 현대인들은 가시적인 공동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의 개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복'으로 대변되는 것인데, '건강한 사회 전체의 정의로운 삶'이 아닌 '개인의 물질적인 풍요', '생태계를 포함한 인간의 영육의 통전적인 건강'이 아닌 '개인의 육체적인 건강', '죄로부터의 칭의와 그로 말미암은 섬김의 자유'가 아닌 '개인의 심리적인 자유'에 머물 뿐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설교는 이러한 개인들의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해 그들이 선호하는 갈등해결과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설교의 적용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뿐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음의 상품화' 현상을 드러내게 되고, 그것은 결국 성서적 지향과는 거리가 먼 기복신앙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승진은 이렇게 '사사화된 복음'에 대해

50) 위의 책, 156.

51) 위의 책, 162.

52) 이원규 편, 「한국 교회와 사회」 (서울: 나단출판사, 1989), 319.

53) 박영신, 정재영 공저,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6), 220.

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복음의 효력이 미치는 파장을 인류 역사와 전 우주의 공동체적 구원과 변혁에까지 확장시키지 않고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설득력 구조(plausibility structure) 하나를 선택하고 더 효과적인 심리 기제(psychological mechanism) 하나를 소비하는 개인의 선택 문제로 국한되는 현상을 말한다.⁵⁴⁾

이러한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의도했던 성부 하나님의 통전적 구원과 그 통전적 구원의 가시적인 증표들인 신앙 공동체 전체의 성숙과 변화나 공동체적 윤리, 그리고 신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불가능하게 한다. 설교가 이렇게 ‘변화와 순종과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설교는 주로 ‘지성적인 이해를 강조하는 설교’, 또는 ‘감성적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사사화된 설교가 이어지고, 청중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소비하는 종교 소비자로 전락한다는 것이다.⁵⁵⁾ 마이클 쿡은 이렇게 주로 작은 단위의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 지도자를 ‘상황적인 지도자’라고 하며, 이러한 리더십을 ‘미시적 수준의 리더십’이라 부르는데, 대다수의 목회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개인이 모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 보다는 배타적으로 개인의 필요만 강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⁵⁶⁾

정재영은 이러한 설교의 사사화가 한국 개신교의 급성장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병서는 근대화의 물결이 격동하던 1960~80년대 20년간 한국 개신교회는 폭발적 성장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 시기에 460여 만 명이 증가하였다고 한다.⁵⁷⁾ 이 시기의 개신교의 수적(數的)성장을 깊이 있게 분석한 정재영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사이에 적지 않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의 한국 개신교의 성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⁵⁸⁾ 정재영은 지금까지 논의해 온 세속화와 다원주의,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상황과 소비자 선호에 따른 종교의 사사화 문제를 통해

54) 이승진, 「교회를 세우는 설교목회」, 213.

55) 위의 책, 213-215. 설교에 있어서 사사화의 원인에는 설교의 다원화, 해석의 다원화, 해석학과 설교학의 괴리, 신설교학의 청중 중시, 설교자들의 신학없는 영성(정용섭, 유경재), 교회론의 부재(은준관, 이학준)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56) 마이클 J. 쿡, 「전방위 리더십: 회중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설교」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127-128.

57) 김병서, 15.

58) 정재영, “세속화와 한국 교회의 성장” (사회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 4-10. 이러한 설명들로는, 교회 내적인 요인으로서 ‘교회사적인 접근’, ‘교회론적인 접근’, ‘선교론적 접근’과 교회 외적인 요인으로서 ‘전통적 샤머니즘의 영향’과 ‘사회 구조적 차원’이 있다.

보수진영의 성장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 참여’라는 척도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데, “그랜드 래피드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 봉사(social service)와 사회 활동(social action)을 구분하고 있다.⁵⁹⁾

사회봉사	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궁핍 구제 • 자선 활동 • 각 개인과 가족 단위 도움 추구 • 구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궁핍 원인 제거 • 정치적, 경제적 활동 • 사회구조의 변화 추구 • 정의 추구

정재영은 사회 참여를 ‘사회 활동’ 범주에 속하는 활동들을 지향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보진영을 이러한 사회 참여, 즉 사회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세속적 가치에 관심이 없거나, 세속적 가치에 관심을 두더라도 개인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만을 인정하여 받아들여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참여와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다.⁶⁰⁾ 이러한 구분에 따라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신자수 증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보진영은 평균 7.64%의 증가율인 반면 보수진영은 11.04%에 이른다. 1972년을 기준하여 진보진영의 신자수 총계는 1,252,245명으로 보수진영의 982,398명보다 27만여명이 많았다. 그러나 1981년의 신자수 총계는 보수진영이 2,465,401명으로 진보진영의 2,258,242보다 20여만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⁶¹⁾ 같은 기간 진보진영 신자수가 1,005,997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보수진영 신자수가 1,483,003명이 증가한 것이다.

정재영은 이러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서로 다른 성장의 원인을 종교다원주의로 인한 ‘시장상황’에 대한 양측의 반응에서 찾고 있다. 종교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불가피한데, 개신교 보수진영은 종교의 성공 척도를 “각 종교의 교리를 사회에 효과적으로 전파하여 심는 것”에서 찾기보다, “고객을 얼마나 유치하고 있는나”를 결정적인 것으로 보는 성장제일주의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진영이 사회의 경제주의 현상을 그대로 수용하였는데, 이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소비자 선호’에 맞춘 결과이며, 이는 보수진영 설교에서 ‘복음의 상품화’의 전형적인 모습인 ‘신앙의 기복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시장상황에서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사회참여나 정치참여라는 종교적 상품은 개인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판매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⁶²⁾

59) 존 스타트,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30.

60) 정재영, 25-26.

61) 위의 책, 30-32.

이원규 역시 한국에서 개신교회의 성장은 보수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교회가 보수적이어야 성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대체로 보수적 신앙노선을 걷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적인 신앙의 특징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회는 마귀의 영역으로 보아 사회적 책임·사회적 관심·사회참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나아가 반사회적이고 몰역사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개인이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아, 주로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에 시간, 관심, 노력, 금전을 많이 바치게 되어, 결국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이다.⁶³⁾

김성건은 오늘날 종교의 보수화는 개선되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김성건은 현대 사회에서 '사사화'되고 있는 종교제도를 루만의 '체계이론'을 빌어서 설명하는 가운데, "대(對) 사회적인 '영향(performance)'을 행사하는 것보다 그것의 고유한 영적 '기능(function)'을 담당하는 것을 한층 더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⁶⁴⁾ 곧 교회가 '경제적 빈곤, 정치적 억압, 환경 파괴' 등의 문제보다, '헌신과 경배, 구원의 추구, 영혼의 치료' 등의 문제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개인의 주관성의 증대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종교의 '사사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고 말한다.⁶⁵⁾ 위에서 정재영이 구분한 바와 같이 보수진영의 특성이 현대 사회에서 지속되리라 전망하는 것이다.

4. 설교사례로 본 사사화 현상

이제 본 단원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한국 개신교 설교의 사사화'가 오늘날 설교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려 한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가운데 '팔복'을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 설교분석에 있어서 '팔복'을 선택한 것은, 우선 마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교회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양용의는 '하나님 나라'가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로서, '하나님 나라 윤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 산상수훈의 대상자들은 5:1절에 표현된 것처럼 '제자들'로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좇는 자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그에게 헌신된 제자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은 일차적으로 '산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지만, 나아가 '그들과 일체감을 갖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곧, 교회)'이라고 한다.⁶⁶⁾ 프랜스 역시 산상수훈을 '제자도에 대한 강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기독교적 대항문화'(Christian counter-culture)가 될 사람들이 예

62) 정재영, 45-53.

63) 이원규, "한국교회 성장운동의 재평가", 「목회와 신학」 1990년 2월호, 71-72.

64) 김성건, "세계화와 현대 종교의 구조적 위기", 「한국사회학」 제38집4호 (2002): 159.

65) 위의 책, 184.

66)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87-90. 그렇다고 여기에서 '무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을 부르심은 '만민'이 '대안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제자들)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요구되는 급진적인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다.⁶⁷⁾

팔복은 이러한 마태복음의 교회론적인 관심, 그리고 산상수훈의 세상과 다른 ‘대항 문화’적인 ‘제자 공동체’라는 배경 속에서 보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서, “팔복의 반직관적 역설(counterintuitive paradox)은,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정상적인’ 질서를 갖춘 외부 세계와 조화되지 않는 대조적인 사회”임을 보여준다.⁶⁸⁾ 그런 차원에서, 팔복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핵심 단어인 ‘마카리오스’(μακάριος, ‘복되다’)는 ‘대단히 행복한’ 또는 ‘지극히 운이 좋은’으로서, 대개 현 상태 자체가 지극히 행복함을 의미한다.⁶⁹⁾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존재의 상태”로서, “부정적인 감정, 감정의 부재, 또는 곤란한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복을 없앨 수 없다.”⁷⁰⁾ 이 행복은 세상적인 것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자주 정반대되는 것으로,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하늘 나라)를 누리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누리는 자들이 경험하는 심오한 내적 기쁨이다.⁷¹⁾

설교분석 대상은 ‘대형교회’로 할 것이다. 양희송은 “목회자로 하여금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게 하는 방식”을 ‘교계 중심 패러다임’인데, 이는 “대사회적으로는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서도 목회자가 성도 전체를 대표”하게 하는 ‘과잉대표’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승진은 이런 과잉대표의 문제는 한국 개신교의 설교에서도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 개신교 전체에는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중소형교회가 공존하지만, 대형교회나 유명설교자들의 ‘성장 일변도 설교’나 ‘개인주의적이고 사사화된 설교 메시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설교비평은 ‘설교학적 차원’과 ‘종교사회학적 차원’에서 ‘정성평가’(定性評價)를 시도할 것이다. 먼저 ‘설교학적 차원’의 설교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자. 정인교는 설교비평의 7가지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⁷²⁾

67)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153. 그랜트 R. 오스본, 「존더반 신약주석 강해로 푸는 마태복음」 김석근 옮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5), 176에서 재인용.

68) 리처드 헤이스, 「신약의 윤리적 비전」 유승원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165.

69) 양용의, 91.

70) 마이클 윌킨스, 「NIV 적용주석 시리즈 - 마태복음」 채천석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9), 230.

71) 양용의, 91.

72) 정인교, 「한국교회와 설교비평, 이상과 현실 그리고 미래」, 「기독교사상」 2007년 12월호, 168-171.

첫째, 설교 메시지와 성경 본문과의 관계이다. 성경 본문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 해석이 본문에 드러난 ‘객관적 사실의 보편적 의미’를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설교비평은 설교를 ‘조직신학적 배경’에서 살펴야 하는데, ‘기독교 복음의 기본 정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해’, ‘전통 교의학적 흐름’과 상충되지 않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설교의 결과에 대한 문제인데, 설교는 개인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데, 특별히 ‘공동체의 차원’에 강조점을 두고서 살피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설교학적 차원’에서의 비평을 바탕으로, ‘종교사회학적 차원’에서 설교의 사사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에 있다. 세속화에 대한 반응에는 적응과 거부, 그리고 갱신의 세 가지가 있는데,⁷³⁾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 이뤄지는 설교 비평은 세속화에 대한 ‘적응’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종교가 사사화되는 현실에서 설교가 드러내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하나는 현대인들에게 적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설교의 주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⁷⁴⁾ 호튼은 베버의 ‘세속화 이론’에서 처음 단계는 종교가 사적영역으로 후퇴하는 것인데, 곧 “예수는 살아계시다”와 같은 진술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이고 공적인 주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살아계시다”와 같은 사적 감정과 결단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⁷⁵⁾ 정재영은 이러한 경향성은 설교에 있어서 심리치료와 관련된 많은 어휘가 사용되며, 이는 진지한 신학 차원에서의 검토 없이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사용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⁷⁶⁾ 이러한 설교주제가 ‘개인의 영역’에 제한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 온 ‘기독교 공동체와 공적 종교’로서 기독교적인 특징과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팔복’을 본문으로 이뤄지는 설교비평에 있어서 설교의 주제가 개인의 영역에 제한되는 현상은 ‘하나님 나라’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사사화 경향을 크게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가 사사화되는 현실에서 설교가 드러내는 또 다른 문제점은 ‘실용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재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현실 세계를 강조함으로써 자연히 내세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고 현세에서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는 경향을 낳아 결국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속 가치에 매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⁷⁷⁾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자면, 정재영이 말하는 ‘내세’는 ‘하나님의 통치’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과 육, 내세와 현세를 아우르는 통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용적 합리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통치’를

73) 버거는 세속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종교와 사회」에서 ‘적응’과 ‘거부’를, 「이단의 시대」에서 ‘갱신’이라는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74) Marsha Witten, *All is Forgiven: The Secular Message in American Protestant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20. 박영신, 정재영 공저, 252에서 재인용.

75) 마이클 호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김성웅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73.

76) 박영신, 정재영 공저, 252.

77) 위의 책, 252.

망각하거나 거부하는 왜곡된 신앙으로서 ‘사사화된 신앙’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분석의 ‘틀’은 위 1항의 ‘가’에서 제시한 ‘팔복’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위에서 제시한 ‘설교학적 차원’과 ‘종교사회학적 차원’의 종합에서 이뤄질 것이다. 설교 분석의 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설교분석의 틀

구분	공동체성과 개인	복에 대한 해석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설교	설교의 주제, 내용이 ‘제자공동체’로서의 교회(공동체)로 설정되며, 설교에 나타난 실천이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설교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차원의 존재적 기쁨
개인주의적이고 사사화된 설교	설교의 주제, 내용이 ‘개인’으로서 설정되며, 설교의 실천이 사적인 차원에 한정된 설교	‘복’이 실용적 합리성을 강조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

설교는 주로 ‘굿티비’(http://www.goodtv.co.kr)에서 검색하였는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잉대표’의 현상 때문이다. ‘굿티비’에 소개된 설교들 가운데서, 교인수가 1000명 이상의 대형교회의 설교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팔복은 대부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어서, 분석의 일관성을 살리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3절을 중심으로 설교한 설교들을 분석할 것이며, 최근의 날짜로부터 10편을 선택하여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설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표2> 설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⁷⁸⁾

교회명	교파	지역	교인수	설교본문	설교제목	설교자	설교일자
ㄱ교회	순복음	분당	대형	5:3	심령이 가난한 자	ㄱㅇㅇ	17. 06. 04
ㄴ교회	순복음	서울	초대형	5:3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ㄴㅇㅇ	17. 03. 19
ㅇ교회	예장통합	서울	초대형	5:1-12	천국시민	ㅇㅇㅇ	17. 03. 05
ㄱ교회	감리교	서울	초대형	5:1-3	가난한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ㄱㅇㅇ	16. 06. 26
ㄷ교회	예장합동	대구	초대형	5:3-4	새로운 복으로의 초대	ㄱㅇㅇ	16. 06. 12
ㅇ교회	예장통합	판교	초대형	5:3-10	팔복	ㄱㅇㅇ	15. 11. 22

78) 교회명은 이름의 첫 두글자의 초성만 기록하였으며, 설교자명 역시 이니셜로 처리하였다. 교인수는 한국교회에서 통상적으로 규모를 분류하는 것을 따랐다.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을 “대형”, 3000명 이상을 “초대형”으로 구분한다.

ㅈㅇ교회	예장통합	서울	초대형	5:3	심령이 가난한 자	ㄱㅇㅅ	15. 11. 22
ㅅㅈ교회	대신	안양	초대형	5:1-3	심령이 가난한 자	ㅎㄷㅇ	15. 08. 16
ㅈㄱ교회	침례교	분당	초대형	5:1-3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	ㅈㅈㅎ	14. 01. 05
ㅅㅇ교회	예장합동	부산	초대형	5:1-3	심령이 가난한 자	ㅈㄷㅇ	12. 03. 25

위 '1항'의 통계 방법을 기초로 하여 “설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의 설교들을 듣고, 설교 내용을 분석하였다. 위 표의 순서에 따라 설교의 분석 내용을 기술할 것인데, 가능한 '설교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공동체성과 개인', 그리고 '복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지면상 대표적으로 두 교회만 제시할 것이다.

처음은 'ㅅㅈ교회' 'ㅈ목사'의 설교를 보자. 그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3)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ㅈ목사는 우리 사회에 있는 가난의 문제는 “천국이 임하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시제'로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임을 말한다. 그는 칼빈의 말을 인용하며,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ㅈ목사가 ‘순복음의 기초’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기적, 부요함, 치료’, ‘기적과 능력’이며, 이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으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각자의 ‘기도’와 ‘소망’, ‘열망’에 달려 있는 것, “천국을 침노”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그는 ‘대안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 세상의 개인적인 문제해결에 국한되고, 개인적인 차원으로서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ㅈㄱ교회' 'ㅈ목사'의 설교다. 그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1):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마 5:1-3)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ㅈ목사는 팔복의 말씀을 보면 청중이 “복수”로 쓰여져 있음을 지적한다. 개인이 아니라 복수로, 그 공동체 함께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한다고 하며, 이를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킨다.

그는 세 가지 설교의 중심내용으로 설교하는데, 첫째로 심령의 가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는 ‘영적인 상태가 빈곤’하다는 뜻으로서, ‘영적인 파산선고’라고 한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과 무능, 사랑 없음과 무지와 같은 “절대빈곤의 영적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한다. 둘째로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천국의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소유(재물, 명예, 타이틀 등)를 붙잡고 있다면, 가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셋째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의 질문을 던지며 3가지의 적용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아야’ 하며,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며, ‘겸손히 비워져야’ 함을 말한다.

주목사의 설교는 이 본문이 ‘제자들’, 곧 ‘대안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잘 포착하고 있고, 그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팔복’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반면, 진 목사의 설교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적용은 본문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의 신앙적 괴리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는 7교회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가?’를 묻는다. 이는 아직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많음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신앙 정체성이 흐려진 성도들을 향한 권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설교전체의 주제와 내용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의 복도 실용적인 합리성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임이 잘 설교되고 있다.

다음은 ‘**7교회**’ ‘**주목사**’의 설교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마 5:1-3)라는 제목으로 설교한다.

주목사는 여기서의 가난은 ‘프로코스’로서 절대빈곤을 말한다고 하며, 이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을 말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요하기를 원하시며, 축복을 받아서 나눠주고 도와주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요케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든지, 물질을 잘 못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고, 부요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런 사람이 은혜 받기가 쉽다고 한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따라서 천국백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심령이 배부른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어렵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며, 결국 구원받지 못해 천국백성이 되기 어렵다고 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며, 심령이 부요한 사람은 교만하다고 하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며, 봉사 잘하고, 잘 참고, 충성한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축복으로 받게 되고, 세사사

는 동안에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된다고 한다. 그는 성도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런 복을 받으라고 한다.

주목사의 설교에서는 공동체적이거나 공적인 주제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복음에 관한 언급이나 ‘팔복’의 가르침 역시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복’에 있어서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 땅에 누리는 천국은 ‘마음의 천국’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지적한 ‘사적 감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10개 교회의 설교분석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 전체의 설교를 논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살펴본 설교의 사사화가 오늘날의 설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과잉대표의 차원에서 대형교회들의 설교분석을 통해, 현대의 설교가 공동체적이며 공적인지, 아니면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는지, 또 복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팔복’에 대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문이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복의 개념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과 전혀 다른 것임을 감안할 때, 설교분석을 통해서 설교의 사사화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3> 설교분석 결과⁷⁹⁾

구분	공동체와 개인		복에 대한 해석	
	공동체 또는 공적	개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존재적 기쁨	물질적, 세속적인 실용적 합리성
스오교회(스오스)	×	○	△	×
스비교회(스비오)	×	○	×	○
오리교회(오리스)	○	△	○	×
기리교회(기리스)	×	○	×	△
디비교회(디비트)	×	○	△	△
오리교회(오리스)	△	○	○	×
트오교회(트오스)	×	○	△	×
스즈교회(스즈오)	△	○	△	×
스기교회(스기흥)	○	×	○	×
스오교회(스오디)	×	○	×	○

79) 표에서 ○는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경우이며, △는 특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며, ×는 해당하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이제 <표3> 설교분석 결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공동체성과 개인’의 분석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의 설교에서 주제나 내용이 ‘제자공동체’로서의 교회공동체로 설정되거나, 설교의 실천이 공동체적이고 공적이기 보다는 ‘개인’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공동체적인 언급이 설교에 나타나더라도, 그 실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다뤄질 뿐이다. 또한 공적인 내용이 설교에서 나타나는 것은 극히 드물다.

‘복’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실용적 합리성을 강조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부분이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라는 공동체적이며, 나아가 공적인 측면이 간과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은 하나님과 신자 개인간의 관계로만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는 개인적인 죄로 인한 것도 있지만,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겪는 위기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을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과 윤리의 결과로 인해 주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이 복도 현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오는 복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의 복은 세속적인 것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성취’에서 오는 것인데, 이런 본문의 설교에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이 드러나고 있음을 간과해서 볼 수는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항문화적인 제자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설교함에 있어서, 설교의 주제와 내용, 그리고 그 실천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교되는 것을 볼 때, 오늘날의 설교가 ‘사사화된 설교’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김성건의 지적대로, 현대사회에서 ‘사사화’되고 있는 종교는 ‘대(對) 사회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보다 종교의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 곧 ‘구원추구’와 ‘영혼의 치료’ 등에 중점을 두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설교분석의 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종교가 사사화되는 현실에서 현대인들에게 적실성을 갖기 위해서 설교의 주제가 개인의 영역에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설교의 사사화 현상에서 보았듯이, 또한 한국 개신교 급성장기의 설교의 사사화에서 보았듯이 ‘설교의 사사화’가 한국개신교의 설교현장에서 다분히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나가는 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신앙의 사사화’ 문제는 시대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구조와 제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설교가 교회 공동체의 과제가 아니라, 목회자 개인의 과제로만 취급된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 즉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를 포함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해석하는 과정의 부족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외적인 말씀’으로서 성경과 선포가 ‘내적인 말씀’, 곧 내면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이런 차원에서 루터는 고린도전서 2:15의 말씀을 인용하여 교황이나 사제, 혹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⁸⁰⁾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열광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성경과는 별도로 개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성경해석을 검증한다는 것은 아니다.⁸¹⁾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해석의 권위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해석의 세 가지 원리⁸²⁾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차원에서 뉴비긴은 교회가 세속문화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구별과 책임의 조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탈성직화된(declericalized)” 신학이라고 말한다.⁸³⁾ 뉴비긴은 신학이 교인들의 ‘내적인 영적 삶’에 대한 사제와 목사의 영역으로서 ‘전문적인 성직자들의 불가사의한 추구’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성서학자’들의 끊임없는 전문적인 연구들은 훈련받지 못한 평신도들이 성경말씀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신학이 세속적인 문제들로부터 더 물러서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불평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인데, 성경이 평신도의 손에서 박탈되어 사제들도 아닌 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이다.⁸⁴⁾ 뉴비긴은 “모든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평일의 직업의 실제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매일의 세속적 직무를 위해 복음으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만 “우리 문화가 분열시킨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통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⁸⁵⁾

80) 칼-하인츠 츠어 뮐렌,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정병식, 홍지훈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91.

81)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Translated by Robert C. Schultz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77. 마이클 호튼 역시 종교개혁적 주장이 이러한 왜곡된 경향이 아님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는 “종교개혁은 개인에게 성경 해석권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루터가 지적하듯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종교개혁은 교회 전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탐구하자는 요구였다. 종교개혁은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공동 방식이며, 성직자와 일반 신자를 진리의 띠로 연합하는 것-의 새로운 시대를 촉진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종교개혁이 현대의 개인주의를 태동시켰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라고 한다. 마이클 호튼, 「사도신경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기독교 핵심」, 252-253.

82) 종교개혁자들은 성경해석의 세 가지 원리를 말하는데, 이미 언급한 ‘성령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령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이다.

83) Lesslie Newbigin,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141.

84) 위의 책, 142.

그렇다면 우리가 ‘사사화된 설교’가 아닌 ‘공동체적 설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로날드 앨런은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설교를 통해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려 한다면 바람직한 설교에 대한 고민의 해답은 교회론(ecclesiology)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⁸⁶⁾ 찰스 캠벨은 “설교자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서” 설교의 실천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며, 설교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역들이 “가장 공적인 모습으로 진행되는 경우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다.⁸⁷⁾ 그러므로 캠벨은 “설교후원그룹”의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설교자에게 예화나 적용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함께 경청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깨달음을 얻거나, 설교 메시지의 중요한 의미를 함께 나누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제공하는 것이라 말한다.⁸⁸⁾

그러므로 “본문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는 본문의 의미를 구현한다(embody)”는 리처드 헤이스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공동체가 성숙해 감에 따라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을 대면함에 따라, 신약 성경에 대한 신선한 독해를 생성시키는 해석학적 피드백의 고리가 생겨난다”고 말한다.⁸⁹⁾ 그러므로 리처드 헤이스는 “신약 성경의 해석은 고립된 개인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말씀의 구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발생한다. 해석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활동이다”라고 말한다.⁹⁰⁾

이런 과정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체적으로 세우며, 말씀에 대한 수동적 청취자의 자리에서 적극적 경청의 자리로 옮기게 함으로써,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성령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며, 재사회화로서의 ‘거듭남’을 가능케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의 교제 안에서 공동체의 영성을 더욱 키워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신자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또한 각자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은준관은 이러한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는 신앙을 소유한 자들로서, ‘역사의식’을 지닌 가운데 역사를 긍정하며, ‘증언’을 위해 자신을 내맡기는 헌신적인 백성이다.⁹¹⁾

85) 위의 책, 143.

86) Ronald J. Allen, *Theology for Preaching: Authority, Truth, and Knowledge of God in a Postmodern Etho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155. 이승진, 「교회를 세우는 설교목회」, 216에서 재인용.

87) 찰스 L. 캠벨, 「프리칭 예수」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383

88) 마이클 J. 퀘, 「진방위 설교」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296.

89) 리처드 헤이스, 467.

90) 위의 책, 468.

91)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하나님의 통치와 교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들출판사, 2006), 460.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설교는 더욱 성숙하고, 풍성하며,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갈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입한 하나님 통치가 이미 인간의 삶과 이 역사를 심판하고 또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현존을 분별하는 ‘신앙’의 눈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자신과 화해”하신 것을 깨닫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터(Divine Gestalt), 하나님의 장(場)”으로 과감히 수용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 운명”을 수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고(called out), 세우고(called up), 그리고 다시 일터로 내보내는(called into) ‘종말론적 공동체’”가 될 것이다.⁹²⁾

[참고문헌]

1. 국문서적

- 강영안 외.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새로운 한국교회를 위한 20가지 핵심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 김병서. 「한국사회와 개신교: 종교사회학적 접근」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5.
- 목회와 신학 편집부. 「한국 교회 설교 분석」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박영신, 정재영 공저.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하나님의 통치와 교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이승진. 「교회를 세우는 설교목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 이원규. 「한국 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 이원규 편. 「한국 교회와 사회」 서울: 나단출판사, 1989.
-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 임성빈 외. 「공공신학: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에로의 초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 황원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평택: 교회와 성경, 2012

2. 번역서적

- 로이드 존스, 마틴.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옮김. 증보판: 서울: 복 있는 사람, 2015.

92) 위의 책, 458-460.

- 로핑크, 게르하르트. 「산상 설교는 누구에게?」 정한교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8.
- ,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그리스도 신앙의 사회적 차원」 정한교 옮김. 신정판: 왜관: 분도출판사, 2005.
- 루크만, 토마스. 「보이지 않는 종교」 이원규 옮김. 서울: 기독교문사, 1982.
- 맥과이어, M. B. 「종교사회학」 김기대, 최종렬 공역. 서울: 민족사, 1994.
- 버거, 피터. 「종교와 사회」이양구 옮김. 서울: 종로서적주식회사, 1982,
- 버거, 피터 and 루크만 토마스 공저. 「실재의 사회적 구성: 지식사회학 논고」 하홍규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 베버, 막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현욱 옮김. 2판; 서울: 동서문화사, 2009.
- 빌만, 월벳. 「선민과 만민: 선택사상의 재음미에 의한 선교자세의 재정립」 정한교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3.
- 브루그만, 월터. 「예언자적 상상력」 김쾌상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5.
- 빌지키언, 길버트. 「공동체 101」 두란노 출판부 옮김. 서울: 두란노, 1998.
- 스타크, 로드니.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옮김. 서울: 좋은씨앗, 2015.
- 스타트, 존.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알트하우스, 파울. 「루터의 신학」 이형기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 오즈번, 그랜트. 「존더반 신약주석 강해로 푸는 마태복음」 김석근 옮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5.
- 우스노우, 로버트. 「기독교와 시민사회」 정재영, 이승훈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014.
- 웰스, 데이비드. 「신학실종」 김재영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 지원용 편역. 「신앙고백서」 서울: 컨콜디아사, 1988.
- 찬, 사이몬. 「영성 신학」. 김병오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3.
- 츠어 뮐렌, 칼-하인츠.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정병식, 홍지훈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칼빈, 존. 「기독교강요 하」 원광연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 릭, 마이클 J. 「전방위 리더십: 회중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설교」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 , 「전방위 설교」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헤이스, 리처드. 「신약의 윤리적 비전」 유승원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 호튼, 마이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김성웅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3. 영문서적

- Althaus, Paul.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Translated by Robert C. Schultz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Newbigin, Lesslie.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Luther, Martin. *Sermons I*. Luther's Works. vol.55.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4. 논문

정재영. “세속화와 한국 교회의 성장” 사회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

5. 학술지와 잡지

김성건. “세계화와 현대 종교의 구조적 위기.” 『한국사회학』 제38집 4호 (2002): 157-192.

김운용. “21세기 한국 교회의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한 설교신학 재고(再考).” 『국제학술대회』 vol.12 (2011): 108-144.

이승진. “한국교회 설교의 사사화(私事化)와 공동체 지향적 설교.” 『성경과 신학』 제67권 (2013): 31-73.

이원규. “한국교회 성장운동의 재평가.” 『목회와 신학』, 1990년 2월호, 61-75.

정인교. “한국교회와 설교비평. 이상과 현실 그리고 미래.” 『기독교 사상』, 2007년 12월호, 146-174.

정창균. “한국 교회 설교의 본문 이탈 현상과 주제의 편향성.” 『헤르메네아 투데이』 제54호 (2012. 가을): 67-83.

[논평]

“설교를 통해 본 한국 개신교회의 사사화”에 관한 논평

지창현 (두레교회)

1. 논문의 요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성을 근본으로 하는 신학과 실천을 가진 공동체이다. 하지만 중세 이후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고, 세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사회의 객관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오직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종교의 사사화이다. 이 종교의 사사화의 대표적 현상은 설교의 사사화이다.

교회 공동체성의 상실은 공공신학을 대두시켰다. 사사로운 신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의 본질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에서 비롯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바탕을 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곧 공적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공적 영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선포인 설교는 개인의 심령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설교는 성경적 신앙 공동체인 ‘대안 공동체’를 형성한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잃어버렸다. 기독교 자체적으로는 공동체의 쇠퇴 혹은 공동체성의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종교의 사사화로 연결된다. 종교의 사사화로 공동체성은 상실되었고, 성도를 세울 수 없다. 또한 세속주의가 공동체를 잠식한다. 세속화는 종교의 사사화를 만들어낸다. 즉 종교의 사사화는 종교의 공적 영역이 쇠퇴되고, 또한 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사적 영역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사사화의 큰 특징은 개인주의이다.

공동체성의 쇠퇴는 종교의 사사화로 이어진다. 종교의 사사화는 세속주의와 개인주의를 유입한다. 또한 이 종교의 사사화는 설교의 사사화로 이어진다. 사사화된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나 공동체 지향적인 설교보다 개인의 내면 심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한다. 사사화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를 통한 전 인류와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망각하여 한 개인의 감정과 삶으로 신앙을 축소하였다.

한국 개신교 설교의 사사화의 원인은 세속화와 다원주의이다. 세속화는 종교적 사고, 의식 및 기구들이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잃게 됨을 의미한다. 즉 종교 자

체의 쇠퇴가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들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의 쇠퇴이다. 이 종교의 세속화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은 종교와 결합하는 다원주의 상황에 놓인다. 결국 종교의 내용들은 상대화되었다. 종교가 개인을 규정하던 상황에서 개인이 권위를 가지고 정체성과 세계관을 선택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다원주의 상황은 종교의 내용까지 변화시켰다. 즉 종교는 시장에 내몰리게 되고, 종교를 판매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즉 사람들은 종교의 소비자가 된 것이다. 이미 한국교회는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개인주의화 되었다. 설교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상실하였고, 개인의 '복'과 '위기'의 극복과 선호하는 갈등회복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현상의 검증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신자 수, 총계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수진영은 진보진영보다 훨씬 많은 성도수와 성장을 가져왔는데 이 원인이 다원주의로 인한 '시장상황'에 대한 대처결과로 보고 있다. 즉 성도를 소비자로 인식하고 사회적 경제주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한 보수진영이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 설교의 사사화가 설교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실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1,000명 이상 대형교회의 목사의 설교 중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분석하였다. 종합해 볼 때 분석한 설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교가 됨으로 '사사화된 설교'의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설교의 사사화'가 한국개신교의 설교현장에서 다분히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신앙의 사사화' 문제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발생한 문제다.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구조와 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문제의 답은 교회론에 있다. '본문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는 본문의 의미를 구현 한다'는 리처드 헤이드의 설명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설교자는 신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체적으로 세우며, 수동적 청취자의 자리에서 적극적 경청의 자리로 옮기게 해야 한다. 이렇게 세워진 신자는 공공의 영역에서 또한 각자의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게 될 것이다.

2. 논문의 공헌

첫째로 한국개신교회의 설교가 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사사로운 설교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음을 설교 분석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본 논찬자의 박사학위논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기능으로의 설교 연구"에서 현대 설교의 흐름을 '개인주의 설교, 신앙의 사유화 설교, 성장주의 설교, 사회 윤리를 상실한 설교'로 구분하였습니다. 현대교회의 설교 흐름의 연구는 모두 문헌 연구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쓰면서 사실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를 분석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강 박사님의 논문은 문헌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교회에서 시행되는 설교를 면밀히 분석한 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탁월한 논문입니다. 설교 분석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참으로 귀한 논문으로 여겨집니다.

둘째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교분석기준으로 설교를 분석하여 결론을 제시한 점입니다.

설교 분석 또는 비평(평가)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설교의 구성은 설교자의 신학, 해석학, 설교신학, 또한 청중의 상황 등 많은 것이 고려되어 설교가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정용섭 교수의 설교 분석(비평) 책도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설교를 분석(비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일구 박사는 설교 분석에 있어서(p.10~1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교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분석의 '틀' 즉 '설교학적 차원'과 '종교사회학적 차원'의 종합적 틀을 통해 현대 교회의 설교가 '사사로운 설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설교의 표본을 설정함에도 짧지만 신뢰할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본문의 선정에 있어서 '사사화된 설교'와 '공적 기능을 감당하는 설교'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본문을 선택한 점도 설교분석의 신뢰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개인의 신앙과 성숙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국개신교회의 '설교의 사사화' 현상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강 박사님은 한국교회는 공공성, 공적기능을 상실했으며, 이는 종교의 사사화로 귀결 되었다고 기술합니다. 이 '종교의 사사화'는 설교의 사사화로 연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교의 사사화는 개인주의와 다원주의에 심하게 훼손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사사화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망각하여 한 개인의 감정과 삶으로 신앙을 축소하였음을 주장합니다. 이 '설교의 사사화'는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외면하고, 고민하지 않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사사화'는 소비자인 청중을 만족시켜주기에 '설교의 사사화'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외면당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은 한국교회의 설교의 민낯을 드러내었고, 한국교회 설교의 위기를 잘 드러내었습니다.

3. 아쉬운 점

장절의 구분이 좀 더 명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장은 한국개신교 설교의 사사화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세속화와 다원주의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는 한국 개신교 설교의 사사화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사사화 설교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8페이지는 한국교회 설교 사사화가 한국교회에 급성장기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과 주장하는 바를 너무나 잘 쓴 논문인데, 장절의 구분이 모호함으로 전체적인 장절 안에서 주제를 선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4. 논문의 제안 및 질문

‘설교의 사사화’를 막기 위한 대안은 교회론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p.16).

첫 번째 질문, 교회론이란 대안이 다소 모호합니다. 사사화를 막기 위한 대안이 교회론이라고 하였을 때, 교회론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요?

두 번째 질문, 교회 크기와 ‘설교의 사사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설교의 사사화’를 막기 위한 적정수준의 교회 크기가 존재할까요? 대형(중형) 교회가 ‘설교의 사사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설교의 사사화’를 논의하려면 교회의 크기나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대형교회는 ‘설교의 사사화’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설교의 사사화’를 포기하면 대형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작은 교회 설교자의 설교 분석도 시도해 보길 제안합니다. 작은 교회 설교자의 설교와 대형 교회 설교자의 설교를 비교 분석한다면 한국교회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작은 교회 설교자의 설교가 ‘사사화된 설교’를 벗어나고 있다면 결국 ‘설교의 사사화’는 교회의 크기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무리

본 논문은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실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설교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이며, 성도의 문제이며, 설교자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논문입니다. 또한 실제설교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교회 설교의 흐름을 실제적으로 분석한 귀한 논문입니다. 성경적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신 강일구 박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